

# 출판N

2022.02 Vol.29

[nzine.kpipa.or.kr](http://nzine.kpipa.or.kr)

## 커버스토리 :

2022년 청년 책의 해

- 2030이 말하는 책 생태계

독서의 무용함, 그리고 유용함

나를 읽게 하는 사람

동네책방을 이용하는 청년들

## 정책zoom

출판유통정보화 실현 가능할까?

202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온라인 사업설명회

지역 서점의 가치 찾기

## 출판가 핫&쿨

프로 성우가 생각하는 오디오북 시장

## 인사이드

사서가 말하는 책 이야기

[인터뷰] 대사에게 듣는 노르웨이의 책문화

원작을 빛나게 할 좋은 번역이란

좋은 시를 찾아, 깊게 읽자

Now  
Next  
News  
Network

책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는 매체로  
다양한 목소리와 연대, 연결을 지향하는  
출판 전문 매거진



<출판N> 웹진  
<http://nzine.kpipa.or.kr>



<b>+ 커버스토리</b>	2022년 청년 책의 해 - 2030이 말하는 책 생태계	
	독서의 무용함, 그리고 유용함	1
	· 임명목(작가)	
	나를 읽게 하는 사람	6
	· 김화진(민음사 편집자, 소설가)	
	동네책방을 이용하는 청년들	11
	· 오민지(책방 정류장 대표)	
<hr/>		
<b>+ 정책zoom인</b>	출판유통정보화 실현 가능할까?	16
	· 박찬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	
	202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온라인 사업설명회	20
	지역 서점의 가치 찾기	33
	· 이정은(점오책방-발전소책방5협동조합 조합원)	
<hr/>		
<b>+ 출판가 핫&amp;쿨</b>	프로 성우가 생각하는 오디오북 시장	38
	· 서혜정(성우, '서혜정 낭독연구소' 대표)	
<hr/>		
<b>+ 인사이드</b>	사서가 말하는 책 이야기	42
	· 김은미(이천시립마장도서관 팀장)	
	[인터뷰] 대사에게 듣는 노르웨이의 책문화	48
	· 프로데 솔베르그(주한 노르웨이 대사)	
	원작을 빛나게 할 좋은 번역이란	53
	· 승주연(번역가)	
	좋은 시를 찾아, 깊게 읽자	60
	· 이건청(시인)	
<hr/>		

발행인 김준희 편집인 박찬수 편집위원 김세나, 김홍기, 류영호, 백창민 발행일 2022년 2월 10일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소 548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 대표전화 063-219-2700 E-mail nzine@kpipa.or.kr 홈페이지 www.kpipa.or.kr

기획/편집 정책연구통계센터 디자인/제작 (주)늘플러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필자의 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청년 책의 해 - 2030이 말하는 책 생태계]

## 독서의 무용함, 그리고 유용함

임명목(작가)

2022. 2.

얼마 전에 키우는 개한테 심하게 물리는 사고가 있었다. 한 번 ‘입질’하고 만 것이 아니라, 마치 맹수한테 사냥을 당하는 것처럼 물어 뜯겼다. 팔 한 쪽에는 마치 커다란 구멍이 파인 것 같았다. 사고를 대충 수습하고 우리 집은 나를 문 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했다. ‘안락사를 시켜야 하나?’ 아무리 내가 공격당했다 하더라도, 이미 가족이 된 개를 죽이는 건 차마 하지 못할 일처럼 느껴졌다. ‘중성화 수술을 하면 나아질까? 그래도 바뀌지 않고 계속 사람을 공격하면 어쩌지?’ 걱정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한 애견 훈련사를 부르면서 문제는 놀랍도록 쉽게 해결되었다.



애견 훈련사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실제 개의 행동을 관찰한 뒤에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나게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주었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 가족이 개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된 데 있었다. 우리가 개에게 예쁘다고 귀여워하는 많은 행동이, 개에게는 ‘무리 안의 우두머리 지위’, 즉 알파 지위를 주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강아지 때를 지나서 성견이 되고도, 거의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개를 예뻐했으니 개는 이제 자신이 우리 가족보다 위에 있는 알파라고 여기고도 남았던 것이다. 나는 그런 알파의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에, 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받아야 했던 것이다. 훈련사는 가족들 사이에서 개의 지위를 낮추는 데 필수적인 해결책들을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시연을 보여준 뒤 떠났다. 우리 개는 아직도 훈련을 받는 중이지만, 이제는 알파 자리는 상당히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훈련사가 말해준 무리 동물의 행태와 습성은 내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놓으며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무리 구성원으로부터 항상 인사를 받고자 하는 모습과, 무리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들. 이런 행동 양태는 몇 년 전 내가 프란스 드 발의 『침팬지 폴리티クス』를 시작으로 영장류 행동학 서적들을 교양 삼아 읽을 때마다 수없이 반복되었던 주제들이었다. 나는 당시 읽었던 여러 영장류학 책들 덕택에 나 자신이 인간과 동물에 대한 이해를 크게 늘렸다고 생각했고, 내가 느낀 점을 정리해서 몇 편의 글로 기고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무색하게도 개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 내다니! 역시 책을 읽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간을 키워내고, 독서는 그저 실용적 쓸모가 없이 독서를 위한 독서가 될 뿐인가? 내 상처를 보고 누군가 내게 이렇게 묻는다면 솔직한 말로 당장 할 말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한다면 몇 년 전 읽었던 영장류학에 관한 책들은 이번 사건을 대할 때도 나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어주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반려견을 통해서, 나는 내가 책으로 배운 지식들이 내 주변의 세계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리고 이는 위험천만했던 사고를 받아들이는 내 자세에도 영향을 주었다. 훈련사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바람을 반려동물을 향해 투사하며, 반려동물의 실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마음대로 의인화한 이미지에 맞춰서 끝없는 생각의 연쇄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가 나를 공격한 것은 내가 미워서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저 개는 태생부터 공격적이고, ‘성품이 나빠서’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개에 대한 연민부터 원망까지 온갖 감정이 솟구쳐 오른다. 아마 우리 개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버지는 이런 혼란한 감정을 꽤 겪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심지어 개에게는 인간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과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상당수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덧씌운 것이라는 말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개의 행동 패턴과 그 동기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면, 개와 우리의 관계도 우리 생각처럼 ‘진실된’ 것이 아니라 더 ‘착각한’ 무언가였던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아마 들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훈련사가 해준 이야기들은 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다. 나는 영장류 행동학에 대한 책들도 읽었고, 동시에 동물의 감정을 다룬 책도 몇 권 읽은 상태였다. 동물의 감정과 그 성격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 중인 영역이라고 하지만, 훈련사가 말해준 이야기는 분명히 그중 설득력 있는 하나의 가설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런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내가 겪은 사고를 객관화해서 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개가 ‘나빠서’ 공격을 한 게 아니고, ‘착해서’ 공격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개는 그저 무리 동물로서 자신의 본성에 충실했다. 우리 가족이 개를 우두머리의 자리에 ‘올려준’ 것이었고, 우두머리가 된 개는 무리의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리스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했다. 그런 사건들과 신호들이 하나씩 누적되면서 마침내 내게는 한없이 사랑스럽던 개가 나를 물어뜯는 사태까지 이르고야 만 것이다. 문제는 개에 있는 게 아니었다. 전혀 다른 문법의 사회적 언어, 즉 개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 사이에서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 빚어진 사고였다. 나는 일찍이 그런 지식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 수용을 훨씬 차분하고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오직 남은 것은 (개가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는 없으니) 우리가 개의 언어를 배워가며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익히는 일이었다.

개에게 물린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개와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고를 넘어서 지식의 무용함과 유용성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대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을 때,



특히 순전히 지적 유희를 위한 각종 교양서를 읽을 때면 으레 이런 질문이 따라붙는다. “그거 읽어서 뭐해?” 확실히 그렇다. 40년 전 네덜란드에서 침팬지 무리를 한참이나 관찰하고 기록한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인간 의식의 비밀을 파헤치는 책을 수십 권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의식이 더 고결해지는가? 로마 제국이 어쩌서 붕괴했는지를 아는 게 우리 삶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동물행동학이니 생태학이니 하는 책을 읽었다고 으스스대며 글까지 썼던 나이지만, 실제 개를 키울 때는 그런 책들 첫머리에서 경고하는 ‘의인화의 오류’를 아무 의식도 하지 않고 적극 실천하다가 사고를 겪지 않았는가?

확실히 순전히 책을 통해 배우는 지식이 즉각적인 어떤 유용함을 주지는 않는다. 사실 내가 책을 고를 때도 의식적으로 실용성을 목적으로 고르진 않는다. 재밌을 것 같은 책, 그리고 나의 지식과 설명 욕구를 만족시켜줄 것 같은 책들이 내게는 가장 좋은 책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재미를 위해서만 읽었다 하더라도, 세상을 설명해주는 여러 지식을 머리에 꾸준히, 차곡차곡 쌓다 보면 분명 어느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영장류에 대한 책을 읽을 때는 우리 집이 개를 키울 거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설령 개를 키운다 해도 이런 큰 사고를 겪을 거라고 절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동물과 서열 본능에 대한 나의 지식, 동물이 느끼는 감정과 인간이 감정을 투사하는 기제에 대한 내 지식은 사태를 객관화해서 받아들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신속하게 수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나와 내 반려견의 관계에 준 도움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 지식이 내게 ‘실용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돌이켜 보았을 때 독서를 통해 얻는 지식은 늘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인간 뇌의 작동 기제와 의식의 실체에 관한 지식은, 내 자신의 상태와 감정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은 물론이고, 현대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개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해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내리는 데 근거가 되어주었다. 로마의 멸망에 기후변화와 전염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8년 전에 처음 책에서 접했을 때는 “그거 참 재밌는 분석이네”하면서 흥미로워만 했지만, 실제 기후변화와 전염병의 위협 앞에서 인류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실용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데까지 생각이 달고는 한다. 이를테면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지식이 어떤 식으로 내 삶과 연결되고, 또 그 지식끼리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이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숙고할 때, 일종의 경이감까지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다. 뇌에서 지식을 서로 연결하는 과정은, 나 또한 우주와 인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잠깐이나마 생각하게 해준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말하는 것은 어차피 ‘지식’의 문제이니, 굳이 그것을 독서를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른 대안적 지식 획득의 수단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독서가 그런 유용함을 독점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분명히 타당한 지적이다. 개인적으로 작가로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게 된 뒤에 “와, 그 많은 책을 대체 언제 다 읽으셨어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사실 제가 읽는 게 느리고 집중력도 좋지 못해서 그렇게 많이 안 읽습니다.” 으레 하는 겸양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가장 부지런히 읽을 때도 아마 평균적으로 1주일에 1권씩 읽었던 것 같다. 나는 평소에 유튜브, 웹툰, 단체 채팅방의 메신저, SNS 등으로 각종 지식을 습득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느라 분주해서, 순전히 독서만 하는 시간을 따로 찾기가 오히려 힘들 때가 많다. 그러나 사실 진짜 문제는 인간이 어떤 식으로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여 성찰하는지, 그에 관한 방법론의 문제지, “요즘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다.”며 개탄할 필요는 없다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습득의 수단으로서 독서가 차지하는 독보적인 영역은 분명 존재한다. 이 또한 이미 많이 논해진 사실들이다. 무게감 있는 지식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소화하는 일은 우리의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든다. 종이에 집적된 글자를 보는 일은 그 물리적 성격 때문에 우리가 대상과 차별하게 거리를 두게 한다. 흔히 독서의 비효율성으로 지적되는,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느린 속도는 지식을 내 안에서 깊이 소화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와 동의어이다. 당분간은 기술의 발전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할 이런 경쟁력 때문에, 앞으로도 세계를 설명하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인쇄된 책이든 화면에 뜬 전자책이든 간에 ‘책’이라고 불리는 기나긴 글자의 연쇄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독서에만 의지하라는 것은 아니다(아마 훌륭한 ‘독서인’들이라면 그러지 않으리라 짐작하지만). 책의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정리한 결과물이다. 즉 책은 실제 세계에 대한 충실하면서도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반영물이다. 개한테 물리는 아픔을 책으로 읽는 것과 직접 개의 이빨이 내 살 속으로 파고드는 경험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나는 경험의 풍성함이 세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꾸준한 독서만큼이나 추구해야 할 미덕임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합치되는지, 혹은 어떻게 괴리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 즉 경험을 통해 지식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은 내가 서두에서 묘사하였던 지식을 통해 경험을 해석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주제에 관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내가 일반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나의 이야기가 공감가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아마 많을 것이다. 그런 독자들에게 대해서는 같이 독서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이 ‘유용한 느낌’을 한 번 ‘경험’해보라고 권해보고 싶을 따름이다. 자신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관심사를 다룬 책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나에게 아픔과 행복을 동시에 주었던, 나와는 다른 사회적 신호와 행동 체계를 갖춘 이 동물을 다룬 책들을 조금 더 읽어보고자 한다. 그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 전혀 다른 순간 나에게 빛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을 기대하며.



---

### 임명묵(작가)

작가, 서로 연관 없을 것 같은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연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시진핑 체제로의 전환을 다룬 『거대한 꼬끼리 중국의 진실』과 한국 사회 비평서인 『K를 생각한다』를 썼다.

kerarara@naver.com

[www.facebook.com/dlaudanr](http://www.facebook.com/dlaudanr)

[2022년 청년 책의 해 - 2030이 말하는 책 생태계]

## 나를 읽게 하는 사람

김화진(민음사 편집자, 소설가)

2022. 2.

서울시 중구에 새로 생긴 도서관에서 4회간 한국문학에 대해 짧은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도서관 강연은 처음인데…… 떨리고 두려웠으나 언제나 안 해 보던 일을 해 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곤 했고, 일때문에라도 정기적으로 도서관에 들른다는 사실이 좋았고, 도서관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궁금했으므로 하겠다고 했다. 4강의 작품 리스트를 짤 때에는 조금 신이 난 상태였다. 무슨 얘길 하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한국문학 얘기는 언제나 재밌지, 도서관이니까 구간부터 정기간행물까지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작품을 소개해야지, 하고 말이다.

그렇게 하여 내가 짜 간 리스트는 박완서의 『나목/도둑맞은 가난』(1강의 제목은 ‘한국문학의 원초적 재미, 무궁한 읽기’였다.), 박솔뫼의 『을』(2강의 제목은 ‘쓸쓸하고 맹렬한, 작가의 시작을 읽기’였고……), 최은영의 『내게 무해한 사람』(3강의 제목은 ‘사려 깊게 무르익은, 작가의 두 번째를 읽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에서 소개할 작품은 임선우 소설가의 최근 발표작 두 편이었다. 《현대문학》에 발표되었던 「유령의 마음으로」와 《릿터》에 발표되었던 「여름은 물빛처럼」.

앞서 다짐한 것처럼 한국문학을 읽는 일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는지를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흐름으로 테마를 짜 본 것이다. 이미 한국문학에 거목이 된 작가의 대표작 읽기, 지금 가장 매력적인 소설을 쓰는 작가의 데뷔작 읽기, 혜성처럼 등장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가의 두 번째 작품집 읽기, 그리고 아직 단행본을 내지 않는 신인 소설가의 발표작 읽기. 매우 열의 넘치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첫 수업에 들어가자, 내가 간과한 점이 있는 것 같았다.

그건 바로 수강생들의 연령이었는데, 나는 동네 도서관을 가장 성실히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50~60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분들은 강의를 하는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강의 대상 책인 박완서의 소설도 잘 모른 채로 그저 항상 다니는 익숙한 도서관에서 여는 정기 강연에 자연스럽게 참석하신 분들이었다. 1강에서 나는 박완서 작가의 소설 줄거리를 거의 모두 들려 드렸고, 그를 둘러싼 일화나 생애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다.(박완서 10주기 특별판으로 소설선집 『지렁이 울음소리』를 편집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선 녹초가 되어 까무룩 잠이 들었다. 다음 강의가 걱정되

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내가 선정한 작품들은 도서관 수강생들에게 난생 처음 듣는 책들이었고, 그래서 강의 때마다 어르신들의 리액션이 무척 신경 쓰였다. 그분들은 강의 내내 흥미가 없다가도 강의가 끝나면 “젊은 사람이 재밌게 얘기해 주니까 한번 읽어 보고 싶네.” 하고 말해 주곤 하셨다. 한껏 긴장한 채로 두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말이 힘이 되었는데, 3강이 끝날 무렵엔 심지어 어떤 분께서 나를 검색해 보시곤 “소설도 쓰신다면서요. 마지막에 단편소설 얘기할 때 선생님 소설도 해 주세요.”라고 말해 주셨고……. 나는 편집자로서 맡게 된 강의에서 계획에도 없던 독자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내 얘기를 하는 건 머쓱했지만, 신인 작가의 단편소설을 다루는 마지막 강이 가장 어려울 거라는 내 예상과는 달리 수강생들은 「유령의 마음으로」의 감정을 읽는 유령과, 「여름을 물빛처럼」의 나무가 된 사람, 그리고 「나주에 대하여」(여전히 머쓱하다…….)의 SNS를 통한 이상한 관계—그러니까 가장 그들과 낯설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가장 눈을 반짝이며 재밌게 읽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수업이 끝날 무렵 내게 말해 주었다. “선생님을 알게 되었으니 선생님 소설은 따라 읽겠어요.” 그 말이 수강생 앞에서 찢절매던 나를 그저 위로하는 말이었다고 해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이었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통로처럼 들리기도 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연히 닿게 되어 이유는 잘 모르지만 친밀감을 느낄 때, 서서히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을 때, 그 사람이 건네는 것을 그저 믿어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나는 그 도서관에서 느꼈던 것 같다.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 지금 책을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자기도 모르게 언제나 그런 우연한 접촉이 찾아와 내가 모르던 책을 고르게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읽게 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나 스스로 어떤 책이 읽고 싶어져 정보도 없는 책을 집어 들게 되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어떤 책이 누군가에게 가 닿는 경로는 정말 신비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재미있어 보이는 책 이야기를 하면 “이 책 어찌다 알게 됐어?” 하고 묻고 싶은 마음이 된다. 생각해 보면 나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책 추천을 믿고 싶다는 마음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별로 어렵고 복잡한 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모르던 책을 건네는 이는 나와 이미 알던 사이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든 매체 덕분에 그런 우연한 만남이 가능하게 되기도 한다. 나의 20대엔 팟캐스트가 있었다. 내가 특히 좋아했던 채널은 문학동네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문학 이야기”였다. 권희철 문학평론가가 선정하여 읽어 준 소설의 구절들은 아직도 나에게 오래 감동으로 남아 있다. 권여선의 「봄밤」, 정소현의 「어제의 일들」, 윤이형의 「루카」, 최은미의 「너무 아름다운 꿈」 같은 단편소설들. 나는 그 팟캐스트를 들으며 단편소설에 대해, 그 아름다움에 대해, 그 작가의 이름과 문장에 대해 오래 생각할 수 있었다.

나는 권희철 평론가가 농담 한 마디 섞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소설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고, 아름답다고 여긴 부분들을 차분히 읽어 주는 것이 좋았다. 누군가가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책에 대해 말하면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거나 그 사람에게 끌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까지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그때 느꼈다. 내가 문학 편집자가 된 것도, 그 좋음이 강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내가 지

냈던 얇은 열정마저 덕질이라고 할 수 있다면, 덕질은 이렇게나 쉽게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의 독자들은 아마도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2019년 출판사들의 유튜브 도전 바람(?)에 휩쓸려 몇 편의 영상에 출연했다. 이게 회사 일인지 내 일인지,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인지, 누가 좋아하긴 하는 건지, 아무런 판단이나 기준 없이 그저 풍덩. 얼굴과 직업 정보가 모두 노출된다는 부담이 큰 매체였으나 어쨌거나 그런 선택을 했고, '아아 시대가 너무 달라졌다, 내가 유튜브에…… 유튜브를…….' 하고 종종 스스로를 낮설어하고 부담감에 킁킁했지만 막상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내가 늘 하던 일과 비슷했다. 좋아하는 책에 대해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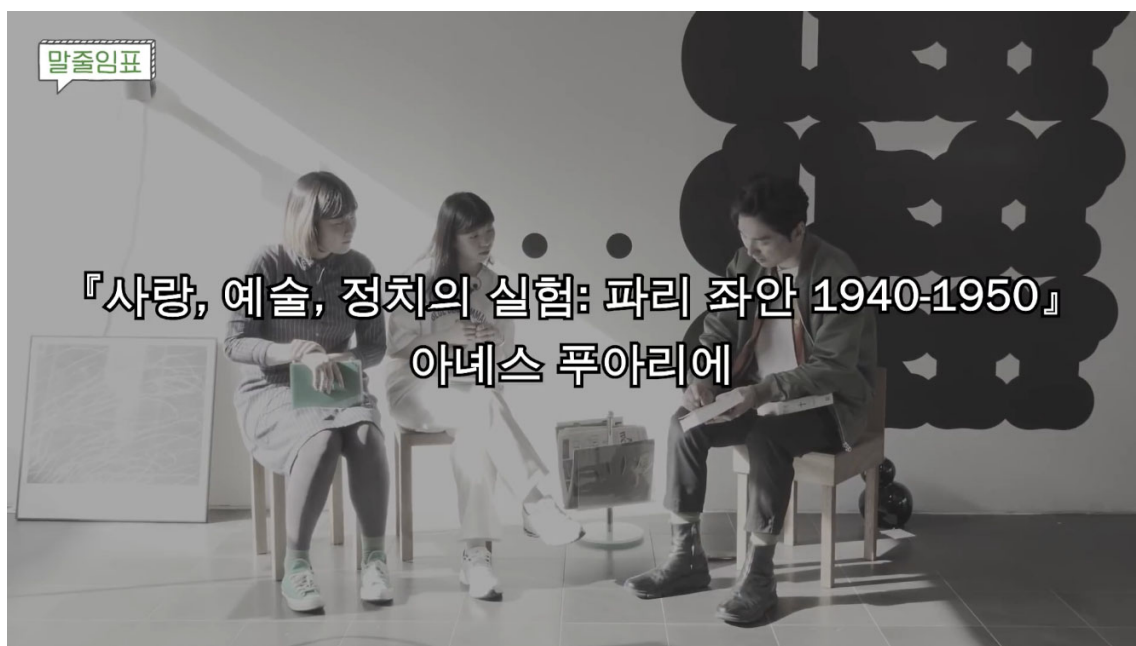
그러면 어느 밤 출판사 팟캐스트를 오래오래 재생해 놓고 소설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던 것처럼, 내가 두서없이 늘어놓는 책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샀다고,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편집자님이 말해서 『자살클럽』 샀어요.', '『일인칭 단수』 샀어요.' 그렇게 말해 주는 분들을 만나면 늘 신기하다. 그런 경험이 좋아서 그 어색한 일을 조금 좋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튜브를 찍는 동안 나도 누군가의 책 취향에 살짝 슴미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나와 함께 몇 편의 영상에 출연한 동료 편집자 기현이다.(정기현 편집자를 좋아하는 민음사TV 구독자 분들 많으시죠……. 저도 정기현 편집자 좋아해요…….)

기현과 나의 취향은 어딘가는 들어맞고 어딘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는데, 우리는 유튜브 촬영을 빌미로, 혹은 촬영을 하지 않을 때에도 점심을 먹으며 서로가 읽은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익숙한 사이다. 그때마다 나는 기현이 말하는 독서 목록을 은근히 챙겨놓곤 했다. 지금 생각나는 것들만 말해 보자면 이렇다. 이탈리아 칼비노의 『반쫓가리 자작』, 『모든 우주 만화』, 내가 아직 읽지 않았던 박솔뫼의 소설들, 오카다 도시키의 『비교적 낙관적인 케이스』, 하야시 후미코와 판판야의 모든 만화들. 부끄럽지만 나는 아직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를 완독하지 못했는데, 기현이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굉장히 좋다고 했을 때 나도 그 소설을 완독하고 싶어졌다.

취향이 멋진 사람들은 얼마나 멋진지. 그 사람들의 취향을 엿보게 되면 내 취향을 넓히고 싶다는 욕망이 든다. 그 두근두근하는 에너지는 우리의 손을 우리가 선뜻 집지 않던 책에까지 뻗게 만든다. 좋아함의 힘은 이처럼 놀랍다. 나는 작년에 런칭한 에세이 시리즈 중 문보영 시인의 『일기시대』를 편집했는데, 그 책에서 문보영 시인은 이 설렘과 부러움, 그리고 즐거움으로 뒤섞인 욕망을 '나도 할래 수용체(I want to do something receptor)'라고 명명한다. 천재인가……. 그도 독서계의 몇 안 되는 멋진 덕질 유발 인간이다. 문보영의 독서 리스트도 펍 탐이 나서, 그의 책을 편집하며 동시에 그의 글에 등장한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G.H.에 따른 수난』과 안토니오 타부키의 『사람들이 가득한 트렁크』를 구입하고 있었다…….

뭔가를 오래 좋아한 사람들이 보내는 좋아함 에너지는 누군가와 손이 미처 닿기 전에 아주 약하게 찌릿, 느껴지는 전기 같다.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그 찌릿함은 아무나 손이 닿는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진짜로 통할 때만 가능한 어떤 것인 셈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지닌 사람은 초능력을 숨기고 평범한 척 살아가는 도사, 히어로, 요정, 마법사……. 그런 존재 같기도 하다. 그런 에너지를 쓰는 사람도, 아주 섬세하게 그 에너지를 캐치하는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소리다. (책에 그렇게 애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통 사람은 아니다.)

최근에 내가 그렇게 느낀 사람 중 한 명은 소설가 정지돈이다. 깨닫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구매한 도서 목록을 찬찬히 훑어보고 나서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구매한 도서들 중 ‘정지돈 추천’ 구매 내역이 벌써 여러 권이었던 것이다. 그가 서점 라이프북스에서 큐레이션한 도서 『영원의 건축』은 그해 하반기 나의 감동 도서였고, 그가 그의 장편소설 『모든 것은 영원했다』 집필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는 사 놓은 지가 한참이었는데 그의 소설을 읽고 나서야 읽기 시작했다. 민음사TV에 출연했을 당시 추천한 『사랑, 예술, 정치의 실험: 파리 좌안 1940-1950』 역시 읽으려고 대기 중이며, 최근에는 시그리드 누네즈의 소설 『친구』도 그가 잡지 《악스트》에 실은 서평을 읽고 샀다.



유튜브 채널 민음사TV 중 정지돈 작가 출연 장면

그리고 올해는 또 누굴까. 언제, 우연히, 멀리서, 어떤 사람이 보내는 좋아함 에너지를 받고 나도 모르게 관심도 없던 책을 집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조용히 설레는 것이 느껴진다. 나를 읽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은 드물지만 드물어서 반갑다. 그렇게 해서 책에 빠지고 취향이 넓어지는 일은 마치 애써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그 책이 필요했다는 걸 세상이 알아채고 내 쪽으로 책을 보내 주는 것 같아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생각하면 더 재밌다.

그리고 보면 언제나 그렇게 될 일은 그렇게 되고, 벌어지는 일의 선후 관계는 뒤엉켜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까지 좋아하게 되는 일을 보면 말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책을 통해 달지 않아도 달고, 역이지 않아도 역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경이롭다. 책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는 만날 책과는 언젠가 만나게 된다.

---

**김화진(민음사 편집자, 소설가)**

민음사 한국문학팀에서 단행본을 편집하고 잡지를 만든다. 202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문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 [2022년 청년 책의 해 - 2030이 말하는 책 생태계] 동네책방을 이용하는 청년들

오민지(책방 정류장 대표)

2022. 2.

오후 2시 오픈 시간에 맞춰 책방 문을 열면 막 방과 후 학습이 끝난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온다. 학생들은 책방 와이파이를 이용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책방에 비치되어 있는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아주 가끔은 책방에서 학교 숙제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데 그때 학생들과 책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일상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그렇게 한참 떠들다가 해가 질 때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집에 간다.



책방 정류장 외부 모습

그때쯤 책방에는 진짜 손님들이 온다. 직장 일을 마치고 책방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러 오는 손님, 주문한 도서를 찾으러 오는 손님 등 말이다.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2019년에 비해 각각 8.2%, 3권 줄어들었지만, 그중 20대 청년층의 독서율은 78.1%로 2019년에 비해 0.3%p 소폭 증가했고 모든 성인 연령층과 비교하면 높은 독서율과 많은 독서량을 보였다고 한다. 실제로 책방에 방문하는 주 고객층은 2~30대다. 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의 유형은 에세이다.

책방에는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지만 주로 에세이 유형의 책이 비치되어 있다. 최대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진열하는 것이 큐레이션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책방을 '다양성 존중'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과 여성, 채식주의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이 책방을 구성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인생' 코너에는 토닥토닥하는 내용의 책보다는 전문적으로 현 상황을 분석해주거나 직접 겪은 일을 공감할 수 있게 쓰인 책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위로하는 글보다는 비슷한 힘듦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의 책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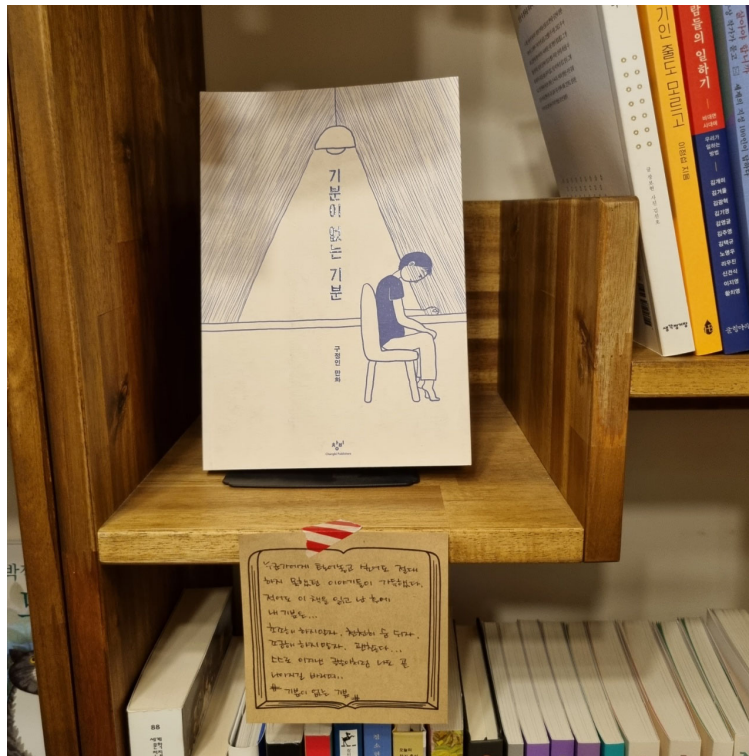
그래서 그런지 일일 책방지기가 『기분이 없는 기분(구정인 만화)』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현재 주 고객층인 청년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 코너에 있는 책들을 고르게 되는지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듯하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절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적어도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내 기분은...

초조해 하지말자. 천천히 숨 쉬자. 조금해 하지말자. 괜찮다...

스스로 이겨낸 글쓴이처럼 나도 곧 나아지길 바라며...



책방에 진열된 『기분이 없는 기분(구정인 만화)』 소개 글

작년에 대전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 진행했던 “책 더하기 예술”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청년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나누며 문화 예술 활동을 함께했다. 그때 한 해 주제로 잡았던 것이 ‘내면의 성장’이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알아보며 초석을 다듬고, 점점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매회 퇴근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너무 피곤한데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받고 힐링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해줬다.

이제는 책방이 책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 같은 정겨움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는 추세인 것 같다. 매년 독립서점, 동네 책방으로 불리는 서점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북스테이라는 형태로 책과 숙박을 함께 할 수 있는 서점도 있고, 30분 정도 책 처방사와 대화를 나누고 책을 처방해주는 서점들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서점들이 청년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필자가 직장을 다닐 때, 항상 퇴근길 버스에 올라 라디오를 들으며 책을 읽었다. 그때 읽었던 책이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이었다. 1998년에 초판이 출간된 책이지만 현시대에 출간된 책처럼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세하게 그려낸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다.

“세상은 네가 해석하는 것처럼 옳거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냐. 옳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옳은 것이 더 많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네가 하는 박사 공부는 그렇게 단순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보는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  
나도 아직 잘 모르지만.”

19살 때부터 시작한 사회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늘 회사생활을 힘들어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다는 말을 매일 반복했다. 그리고 출근하면 매일 퇴사 생각을 했었고, 퇴사 자금으로 모아두던 적금이 만기되자 그걸로 무엇을 하며 먹고살까 고민했다. 그러다 퇴사하고 휴식을 취할 때마다 자주 했던 책 읽기가 생각났다. 책방에서 책을 오래 꾸준히 읽었던 것처럼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 좋은 스피커와 소파 등을 사냈지만 잘 실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책방을 시작했다. 수익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힘들긴 하지만, 회사생활을 했던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선택과 책임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다. 책방을 운영하면서 행복해하는 나 자신을 보며 '지금과 그때는 뭐가 다르지?'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처음 하는 일이라 잘 모르고 적응도 안 돼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책방 관련 인터뷰나 책방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깨달았다. 서투르도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내 삶을 내가 한 선택들로 꾸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 이건 필자 본인뿐만 아니라 책방에 방문하는 많은 청년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책방 내부 모습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가 한 선택들로 인해 후회가 가득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어찌 됐건 삶은 결국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들로 삶을

꾸릴까?’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선택을 할 때 다양한 선택지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폭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구성할 수 없다. 그때 책을 통해 다양한 세계관과 간접 경험으로 선택지를 늘리면 현재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꼭 책이 아니라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나 세계관들을 공유할 때 간접 경험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책방 정류장은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모임이나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 동네 사랑방처럼 누구나 올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퇴근길 책 한 잔을 권한다.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서점을 찾아 나만의 휴식처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부디 나의 취향과 다르다고 동네 서점을 배제하지 말고, 한 번쯤 방문해 색다른 보물들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

#### 오민지(책방 정류장 대표)

대전에 있는 ‘책방 정류장’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주인장 오민지입니다. ‘책방 정류장’은 제가 직장 다닐 때 오후 6시 퇴근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배철수의 음악캠프 시그널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잠깐의 시간이 저에게 굉장한 힐링이어서 저희 책방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잠깐의 시간이나마 힐링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bookstorestation@naver.com

@bookstorestation

## 출판유통정보화 실현 가능할까?

박찬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

202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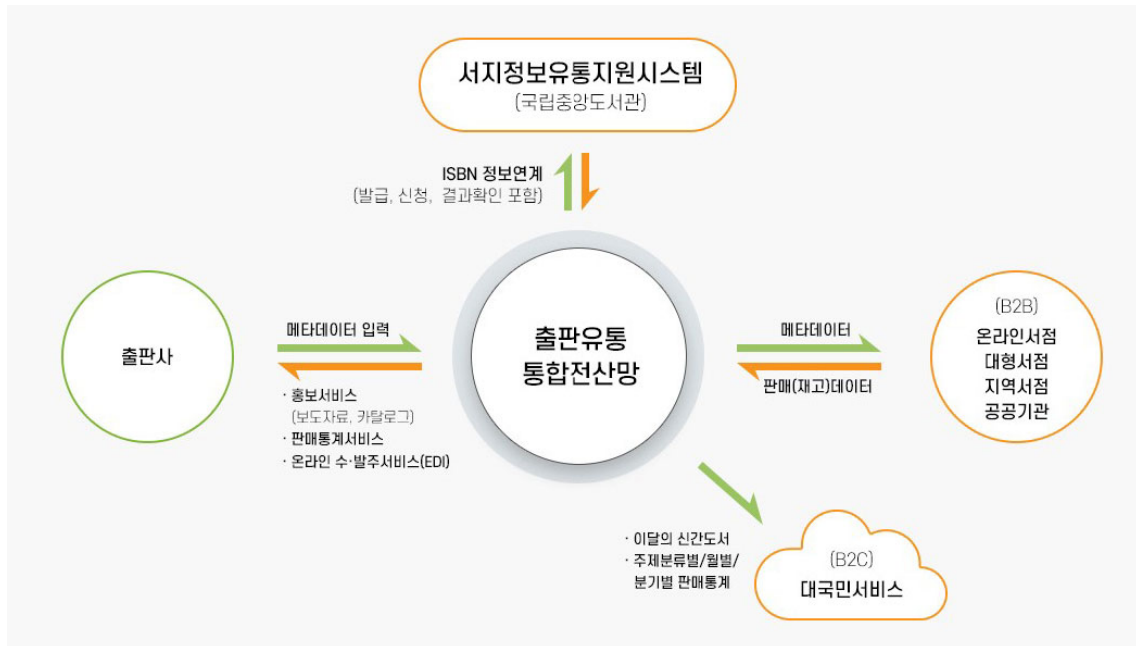
### 1. 배경

국내 출판계는 1992년 ISBN 도입 이전부터 수많은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통해 투명한 경영,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한 출판유통 현대화 또는 정보화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1997년 IMF 당시 대형 도매상 보문당을 시작으로 연쇄부도가 발생했고, 이는 2017년 송인서적 부도까지로 이어지며 실제 출판유통 현대화 또는 정보화는 쉽지 않아 보였다.

이런 과정에서 2017년 1월 2일 송인서적 부도 사태 이후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2017~2021년) 계획 중 출판유통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이 추진되었다. 2018년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대한출판문화협회, 2018)를 시작으로 3단계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도서 메타데이터 및 주제분류체계 표준적용 개발, 표준 메타데이터 통합시스템 개발, 판매통계 시스템 개발, 도서 홍보 카탈로그 및 관리자 시스템 구축, 대형체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 SCM 연계, 지역 서점 판매관리 시스템 연계, 그리고 온라인 전자 수·발주 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 등이었다. 2019년 11월부터 '출판유통정보화위원회'는 민관 협력기구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시스템 개발에 주력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 승인을 받아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한국출판협동조합, 북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 도서관, 저자, 물류, 학회,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합류하여 함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 또한 향후 운영위원회 운영 과정에 보완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서비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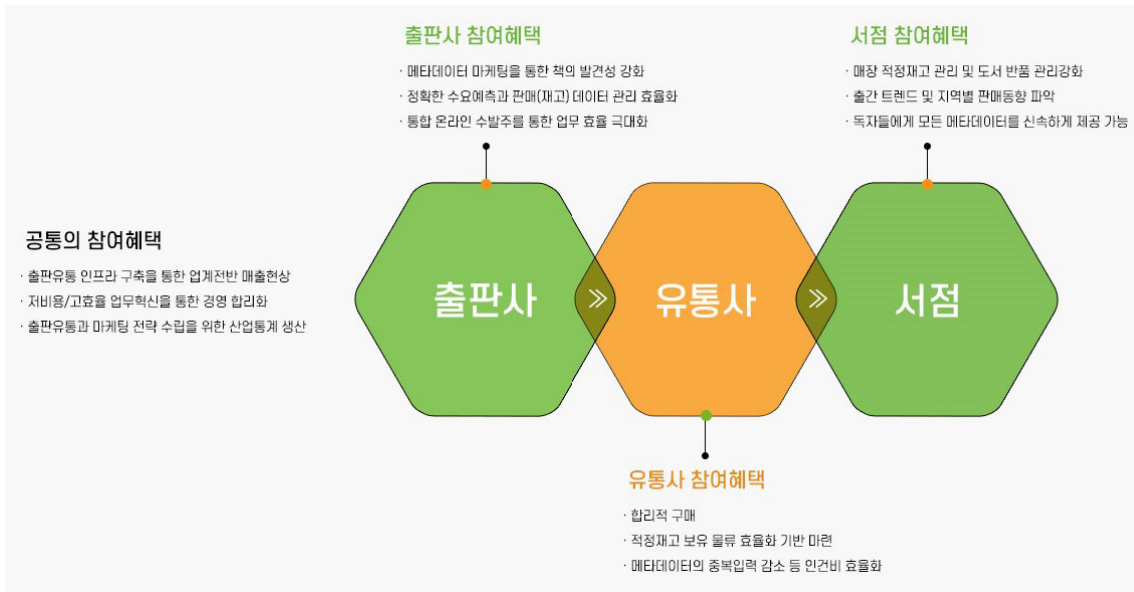
## 2. 통합전산망 운영을 통해 출판사가 얻게 되는 이점

통합전산망 운영의 핵심은 출판사가 자체 발행하고 있는 모든 출판물의 메타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사가 발행한 도서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출판사는 그리 많지 않다. 각 출판사들은 자사 발행 도서에 대한 보도자료를 별도 제작·배포하고, 이후 마케터들은 이 자료를 기초로 판매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홍보자료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통합전산망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해 ISBN 발급,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초기 도서정보를 중복해서 작성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 도서정보(메타데이터)를 입력한 후 유통사에 도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때 도서정보는 유통사, 언론사, 오피니언, 도서관 사서,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또한 카드뉴스, 각종 동영상, 타 출판사 도서와 연대, 전자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메타데이터 마케팅을 통한 책의 발견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다만, 현재 인지되는 도서정보 등록 과정의 불편함은 향후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판매정보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와 322여 개의 지역 서점이 연계된 상태이다. 판매 관련 데이터는 채널별, 기간별, 도서별, 유통사별, 주제별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출판사가 SCM에서 유통사별로 확인했는데, 통합전산망을 통해 전체 판매 흐름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판매 관리 및 마케팅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판매정보는 저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단, 이 기능은 출판사의 동의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기대효과 및 참여혜택〉

### 3. 통합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이 얻게 되는 이점

현재 유통사는 출판사에서 도서 발행 후 작성한 도서정보를 보도자료와 함께 제공받게 되므로, 발행 예정 도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이후 유통사의 시스템에 맞게 각 유통사 직원들이 도서정보를 등록하게 되는 과정에서 도서정보의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즉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정보는 한 개인데, 유통사별 도서정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전산망을 활용할 경우 유통사에서 개별적으로 도서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통합전산망에서 30분 단위로 전송되는 도서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의 신속성과 정확성, 업무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서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도서정보를 정확하게 통일시킴으로써 도서 관리의 편리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유통사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신간 도서에 대해 출판사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며, 도서정보 등록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적극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평가 변경, 절판 또는 품절, 정가 변경 등의 도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지역 서점의 경우 온라인 서점보다 늦게 신간 정보를 접했던 불편함에서 탈피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서정보를 수시로, 신속하게 전달받음으로써 정보 공유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 4. 통합전산망을 통해 독자(이용자)가 얻게 되는 이점

통합전산망은 독자(이용자)를 위해 출판산업 통계, 도서관 대출 현황, 알라딘 서점의 독자 이용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별, 유통 채널별 등 다양한 도서 판매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판시장의 흐름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다. 신간 도서정보와 구간 도서정보가 많아질수록 통계서비스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 5. 끝내면서

서점에서 출판사로 도서를 주문하고 다시 출판사가 서점에 출고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것이 수·발주시스템이다. 아직까지 많은 출판사들이 팩스, 이메일, SCM, 유선전화, 주문전송대행업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문서를 접수하고 있다. 그리고 접수된 주문서를 자체 또는 전문 출판물류회사에 전달해 출고하고 있다. 동시에 진행되는 주문과 출고 업무로 오류도 잦고, 담당 직원은 항상 대기해야 하며, 수도권과 지역으로 분산 출고되면서 이동 시간과 인력 낭비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서점, 출판사, 물류회사, 배본대행회사 등 분산되고 낙후된 물류시스템을 개선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전자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월 말까지 2만 5천여 개 출판사의 구간 도서DB 147만 종에 대한 도서정보를 통합전산망에 등록하려고 한다. 이 중에는 표지 이미지가 없는 것도 있고, ISBN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각각의 출판사가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 구간 도서DB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록된 도서DB를 각 출판사가 검토하고 승인하면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유통사 판매 데이터와 연계되어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로 구간 도서DB는 2021년 12월 말까지 등록된 자료를 출판유통진흥원의 협조로 확보한 도서정보이다.

통합전산망의 핵심 기능은 신간 도서정보를 유통사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유통사 및 서점 등이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과 프로모션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향후 전자 수·발주 기능까지 연결해 출판사들에게 투명한 경영과 인건비 절감, 업무 효율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출판계가 디지털 시대보다 앞서가는 시스템으로 조직구성원, 저자, 독자, 서점, 도서관 등에게 만족스러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통합전산망의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 20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길만, 〈한국 출판유통 정보화의 현재와 미래〉, 「출판연구」 28호, 2021, 한국출판연구소  
최성구, 〈ISBN의 아버지 데이비드 휘태커와 출판유통정보화〉, 「출판연구」 28호, 2021, 한국출판연구소  
박성경, 〈출판계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출판연구」 28호, 2021, 한국출판연구소  
최성구, 〈출판 유통 탱자론〉, 「기획회의」 544호, 2021,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박찬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

## 202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온라인 사업설명회

---

2022.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2년 1월 25일 출판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2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설명회는 지난 12월 28일 제4대 원장으로 부임한 김준희 원장의 인사말과 2022년도 중점 사업 소개로 시작됐으며, 정책연구통계센터, 콘텐츠지원팀, 수출지원팀, 미래산업팀, 출판유통선진화센터, 독서지원팀, 인문지원팀, 지역출판지원팀, 출판산업지원센터 등 아홉 개 부서에서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해 많은 고객이 출판진흥원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기관장 인사말 및 중점 사업 소개

###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의 인사말로 본격적인 사업설명회가 시작됐다. 김준희 원장은 진흥원이 이름과 실체가 일치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공자의 정명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흥원의 임무, 즉 이름값에 대해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와 관련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저자 출판 육성, 출판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임무는 책을 만들고 나누고 읽는 모든 사람과의 일을 잘 지원하여 국가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지식 역량을 갖춘 문화국가로 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더해 2022년 중점 사업을 소개했다. 먼저 디지털 출판콘텐츠에 관한 내용을 전하며, 코로나19 시대 출판계의 특징으로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성장을 꼽았다. 구독서비스에 힘입어 플랫폼의 신규 가입자와 이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밝히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진흥원 역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출판콘텐츠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제작 지원뿐 아니라, 사업성이 뛰어난 출판 원작물이 영화, 웹툰, 게임 등 다른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하도록 출판 원천콘텐츠의 다중 활용을 지원해, 출판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상증강현실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출판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 열다섯 개 과제를 지원하여 출판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출판콘텐츠 수출 지원에 대해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가 유행했음을 짚으며, 우리 출판 분야에서도 좋은 책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찾아가는 도서전 사업을 통해 국내 출판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의 비즈니스 수출 상담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발간된 우리 도서 정보를 망라하는 아카이빙 사업을 신규 수행하여 우리나라 도서의 해외 진출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언어권, 국가,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시스템에 대해 올해는 전산망의 기능을 개선하고 고도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수·발주 기능을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수집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및 산업모델예측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도서관 및 유통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판사 개별 현황, 대국민 통계 등과 같은 통계 분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산망 시스템의 데이터 축적과 운영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으며, 2021년 12월 출판유통, 서점, 도서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산망이 실제 업계가 바라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에서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독서문화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북토론 사업을 예로 들며 매년 꾸준히 노력한 끝에 사업 대상을 2021년 10만 명에서 2022년 27만 6천여 명으로 대폭 확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계층별 책의 해 사업을 소개하며, 2022년에는 청년 책의 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와 친숙하다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오디오북과 같은 디지털 출판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출판산업이 현재 어떠한지 그 실태를 알고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업 소개를 마쳤다.



2022년도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김준희 원장

## 부서별 주요 사업 소개

### 정책연구통계센터


첫 번째로 사업 소개를 맡은 김종현 정책연구통계센터 센터장은 먼저 출판산업 통계조사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출판산업 통계조사 사업은 국내 출판산업 현황과 분야별 실태조사로 정책 자료 및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 1회 진행되는 출판산업 실태조사와 연 2회 진행되는 KPIPA 출판산업 동향으로 구분된다고 전했다. 3월까지 심사 및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규모가 방대한 만큼 출판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서 올해부터 출판산업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출판산업 정책리포트 발간 사업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급변하는 출판환경에 대비하여 최신 현안에 대한 정책 이슈 발굴 및 분석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분기 단위 정보를 제공하여 출판계 및 정책 담당자의 현안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판 전문 웹진 《출판N》 발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출판문화산업의 최신 소식과 정책 이슈 등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출판문화산업 내외 관계자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출판문화산업의 동향과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소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웹진 디자인 개선, 영상 콘텐츠 기사 제공 등 전년과 달라진 점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출판산업 조사연구 사업,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 출판산업 콘퍼런스 및 포럼 개최·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소개됐다.

## 출판산업 통계조사

정책연구통계센터



정책연구통계센터장  
김종현

**사업목적** 출판산업 현황 조사 및 동향 분석을 통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사업내용**



- 출판산업 실태조사 (연 1회)
  - 7개 분야별 조사모집단 정리 및 사업체 조사
  - 결산과 전망 콘퍼런스 개최, 보고서 발간
- KPIPA 출판산업 동향 (연 2회)
  - 출판통계, 경기동향, 상장사 및 트렌드 분석
  - 반기별 보고서 발간(7월, 12월)

**사업절차**

- 공고(1~2월) → 심사 및 선정(2~3월) → 조사 진행 (4~11월) → 결과 발표(12월)

**전년대비 변경사항**

- KPIPA 출판산업 동향 발간(연 2회)  
→ KPIPA 출판산업 동향 보고서 외 정책 리포트 자료 추가 발간(연 4회)



김종현 센터장이 정책연구통계센터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 콘텐츠지원팀


김상우 콘텐츠지원팀 팀장은 먼저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은 양서 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며, 학술 부문과 교양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학술 부문은 연 1회, 교양 부문은 연 2회 진행되며, 선정 분야는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문학 등 총 열 개 분야라고 전했다. 선정 종수와 보급처 수는 학술 부문 400종, 500여 곳, 교양 부문 550종, 3,100여 곳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새롭게 구성된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렸다.

이어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우수출판콘텐츠 발굴·지원으로 출판생산력 강화 및 출판 문화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으로는 개인 저자 및 출판사이며,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다섯 개 분야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심사위원회의 2단계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작품을 선정하며, 선정된 작품은 편당 9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책 디자인에 따라 인증마크 위치 및 색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출판생태계 다양성 및 생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 중소출판사 미발간 창작 원고를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지원 분야는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다섯 개 분야이며, 총 130편을 선정해 편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히며 사업 소개를 마쳤다.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콘텐츠지원팀



산업지원본부 콘텐츠지원팀장  
**김 상 우**

<b>사업목적</b>	양서 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 독서문화 확산 도모																											
<b>지원대상</b>	국내 출판사, 각급 도서관, 국내·외 독자																											
<b>사업내용</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구분</th> <th>학술부문</th> <th>교양부문</th> </tr> <tr> <td>추진 시기</td> <td>연 1회 (7월~12월) 하반기</td> <td>연 2회 상반기: 3월~7월, 하반기: 7월~12월</td> </tr> <tr> <td>대상 도서 발행일</td> <td>'21.7.1.~'22.6.30.(12개월) 기간 내, 국내 출판 학술도서</td> <td>(상반기) '21.7.1.~'21.12.31.(6개월) (하반기) '22.1.1.~'22.6.30.(6개월) 기간 내, 국내 출판 교양도서</td> </tr> <tr> <td>선정 분야</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총 10개 (총류/철학·심리학·윤리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지리·관광)</td> </tr> <tr> <td rowspan="2">심사 사</td> <td>심사 위원회 90명 내 외 위촉</td> <td>상반기 각 90명 총 180명 내외 위촉</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전검토 + 2단계 합의제 (※1차 심사→2차 심사 ※결과 공고 시, 심사총명 공개)</td> </tr> <tr> <td>선정 종수</td> <td>400종</td> <td>550종 (상반기: 275종, 하반기: 275종)</td> </tr> <tr> <td>구입 지원</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중당 800만원 이내(도서 정가 90% 기준)</td> </tr> <tr> <td>보급처 수</td> <td>500여 곳</td> <td>상·하반기 합 3,100여 곳</td> </tr> </table>		구분	학술부문	교양부문	추진 시기	연 1회 (7월~12월) 하반기	연 2회 상반기: 3월~7월, 하반기: 7월~12월	대상 도서 발행일	'21.7.1.~'22.6.30.(12개월) 기간 내, 국내 출판 학술도서	(상반기) '21.7.1.~'21.12.31.(6개월) (하반기) '22.1.1.~'22.6.30.(6개월) 기간 내, 국내 출판 교양도서	선정 분야	총 10개 (총류/철학·심리학·윤리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지리·관광)		심사 사	심사 위원회 90명 내 외 위촉	상반기 각 90명 총 180명 내외 위촉	사전검토 + 2단계 합의제 (※1차 심사→2차 심사 ※결과 공고 시, 심사총명 공개)		선정 종수	400종	550종 (상반기: 275종, 하반기: 275종)	구입 지원	중당 800만원 이내(도서 정가 90% 기준)		보급처 수	500여 곳	상·하반기 합 3,100여 곳
구분	학술부문	교양부문																										
추진 시기	연 1회 (7월~12월) 하반기	연 2회 상반기: 3월~7월, 하반기: 7월~12월																										
대상 도서 발행일	'21.7.1.~'22.6.30.(12개월) 기간 내, 국내 출판 학술도서	(상반기) '21.7.1.~'21.12.31.(6개월) (하반기) '22.1.1.~'22.6.30.(6개월) 기간 내, 국내 출판 교양도서																										
선정 분야	총 10개 (총류/철학·심리학·윤리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지리·관광)																											
심사 사	심사 위원회 90명 내 외 위촉	상반기 각 90명 총 180명 내외 위촉																										
	사전검토 + 2단계 합의제 (※1차 심사→2차 심사 ※결과 공고 시, 심사총명 공개)																											
선정 종수	400종	550종 (상반기: 275종, 하반기: 275종)																										
구입 지원	중당 800만원 이내(도서 정가 90% 기준)																											
보급처 수	500여 곳	상·하반기 합 3,100여 곳																										
<b>사업절차</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2월</td> <td>3~6월</td> <td>7~8월</td> <td>9월~'23년 1월</td> </tr> <tr> <td>4기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td> <td>교양부문(상) 공고·심사·서정</td> <td>교양부문(상) 보급, 학술부문 및</td> <td>학술부문 및 교양부문(하) 심사·서정·보급</td> </tr> </table>		1~2월	3~6월	7~8월	9월~'23년 1월	4기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교양부문(상) 공고·심사·서정	교양부문(상) 보급, 학술부문 및	학술부문 및 교양부문(하) 심사·서정·보급																		
1~2월	3~6월	7~8월	9월~'23년 1월																									
4기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교양부문(상) 공고·심사·서정	교양부문(상) 보급, 학술부문 및	학술부문 및 교양부문(하) 심사·서정·보급																									





2022년 콘텐츠지원팀 사업을 소개하는 김상우 팀장

24

## 수출지원팀


옥희정 수출지원팀 팀장은 먼저 K-Book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출판콘텐츠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사업을 소개했다. 해외 신규시장에 B2B도서전을 개최하고 국내 출판콘텐츠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 러시아, 5월 일본, 7월 베트남, 11월 미국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신규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K-Book 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사업을 통해 영문 웹진 <K-Book Trends>를 발간하여 국내 출판 동향 및 콘텐츠, 작가, 출판사를 홍보하며,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도서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화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플랫폼과 웹진을 통해 국내외 출판관계자 네트워크와 출판 교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해외 발간 한국도서 자료를 수집, 보존, 관리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등 1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두세 개국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 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현지 출판시장 동향 및 이슈 제공, 현지 출판단체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판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실질적 자료 수집, 국가별 주요 출판 기관 및 출판사 조사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해외 도서전 킬러콘텐츠 전시 사업, 수출용 출판홍보자료 지원 사업, 출판콘텐츠 해외발간 지원 사업, 해외 수출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 기대 넘치는 사업들이 소개됐다.

###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수출지원팀





산업지원본부 수출지원팀장  
**옥희정**

- 사업목적** K-Book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및 교류 확대
- 지원대상** 국내 출판사
- 사업내용**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4회)

권역	CIS	아시아		북미
개최국가	러시아	일본	베트남	미국
중점분야	아동, 어학	아동, 문학	아동, 실용	만화, 문학

- 사업절차** (3월)찾아가는 러시아(온라인) 도서전 → (5월)찾아가는 도쿄 도서전 → (7월)찾아가는 하노이 도서전 → (11월)찾아가는 북미 도서전 → (12월)참가사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
- 전년대비 변경사항** 개최 방식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예정)





옥희정 팀장이 한국 도서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 미래산업팀


이상현 미래산업팀 팀장은 우수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먼저 우수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출판사 전자출판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전자책을 확충하는 데 사업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텍스트형 제작 지원, 멀티미디어형 제작 지원, 장애인접근성 강화 전자책 제작 지원 등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출판사 및 전자출판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고품질의 다양한 전자책 공급을 통해 전자출판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KPIPA 디지털북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디지털출판기업 및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출판 제작 시설 지원, 디지털출판 교육프로그램 운영, 디지털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교류회 개최, 디지털북 교육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디지털출판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 시설 지원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년과 달라진 점으로는 비수도권 지역과 연계해 두 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고품질 오디오북 콘텐츠 확충을 통한 오디오북 수요 증대 및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오디오북을 제작 및 유통하려는 모든 출판사와 작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은 연 2회 진행되며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짧은 분량(30분~60분)의 작품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외에도 전자출판 활성화 연구조사 사업, 전자출판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 사업, 전자책 내수 창출 지원 사업,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 출판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업들이 소개됐다.


###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미래산업팀



산업지원본부 미래산업팀장  
이상현

- 사업목적** 출판사 전자출판 역량 강화 및 양질의 전자책 확충
- 지원대상** 출판사 및 전자출판 기업
- 사업내용** [텍스트형] 총 2,950종 내외, EPUB 50만원, PDF 40만원 이내 제작 실비 지원(연 3회)  
[멀티미디어형] 20종 내외, 멀티형 및 장애인 전자책 14종 1,200만원,  
멀티형 전자책 6종 1,000만원 제작 실비 지원  
[장애인접근성] 20종 내외, 텍스트 위주 전자책제작 상한금 200만원,  
앱 제작 2종 1,000만원 제작 실비 지원
- 사업절차** [텍스트형] 온라인 신청 및 도서 제출(2월, 5월, 8월) → 지원 도서 심사 및 선정 → 전자책 제작 및 유통 중빙 → 제작비 지급  
[멀티/장애인] 사업 공고(2월) → 접수 심사, 선정(3~4월) → 제작 및 완제품 제출 (5~11월) → 제작비 지급 완료 (12월)
- 전년대비 변경사항** [멀티미디어형] 멀티미디어+장애인 접근성 14종 1,200만원  
[장애인접근성] 전자책 종당 상한금 200만원



이상현 팀장이 미래산업팀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 출판유통선진화센터

김진우 출판유통선진화센터 센터장은 출판유통선진화센터에서 출판문화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먼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유통선진화 관련 업계 자율 활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도서정가제, 사재기 관련 안내 및 상담, 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동향을 분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전한 독서문화가 정착될 것이며 중 소형 출판사 및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도서 생산·유통·판매 정보의 종합적 수집·관리 및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출판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기능을 개선하고 고도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완전히 자리 잡고 활성화될 경우 업계 내 도서 정보 중복 입력 및 분산 관리에 따른 비효율이 해소되고, 출판 유통 과정의 전산화를 통해 거래 투명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출판물류 기반 구축 사업을 설명했다. 출판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도서 배송 실태 조사, 출판유통구조의 문제점 개선안 마련, 선진국 출판유통시스템 조사 등을 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표준화된 구간유통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활용으로 출판유통의 정보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출판물의 지역서점 유통과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출판유통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표준화된 구간유통도서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사업 소개를 마쳤다.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출판유통선진화센터



산업지원본부 출판유통선진화센터장  
**김진우**

**사업목적**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


**사업내용**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운영
- 도서정가제/사재기 안내 및 위반 조사
-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동향 분석 등

**사업절차** 기본 계획 수립 → 도서정가제/사재기 안내 및 위반 조사 → 결과 보고 및 정산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운영 등

**전년대비 변경사항** 정가 변경 홈페이지 이관

- 기존 : 도서 정가 변경 시, '간행물 재평가 공표시스템'을 통해 공표
- 변경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홈페이지로 시스템 이관(21.11.16.~)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
📄
📊
📦
📖

출판유통선진화센터의 2022년 사업을 소개하는 김진우 센터장

## 독서지원팀


정재만 독서지원팀 본부장은 먼저 청소년 북토크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3월에 2022 청소년 북토크 도서를 150여 종 선정할 예정이며, 4월에는 북토크 대상 학교 및 학생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약 3,500개교, 초·중등학생 약 27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북토크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 및 미래 출판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들의 지역서점 이용 습관 장려 및 도서 보급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서 독서아카데미 사업을 소개했다. 독서아카데미 사업은 책을 기반으로 한 통섭형 강의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구비한 기관 중 우수 강의 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이 있고,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지원 대상이며, 강사료, 강의 교재 제작비, 강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 시설, 지역 인재, 지역 콘텐츠 등을 활용해 지역 문화가 활성화되고, 소외지역 배려를 통한 문화 복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50세 이상 (예비)실버세대의 문화소외계층 대상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일상 속 균등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봉사단 활동비, 활동 도서 구입비, 교육 과정 및 활동 교구 지원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문화봉사단의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및 신중년의 참여독서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스타트 사업,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 사업, 독서문화캠프 사업,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사업 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소개됐다.


### 청소년 북토크 지원

독서지원팀



문화지원본부장  
정재만

- 사업목적** 청소년 독서·독후활동 장려 및 미래 출판수요 창출
- 지원대상** 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초·중등학생 약 276,000명
- 사업내용**
  - 청소년 북토크 도서 선정(150여종)
  - 북토크(도서교환권) 제작 및 배포
    -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학교, 약 276,000장
  - 북토크 교환
    - 전국 지역서점 및 온라인 주문센터에서 자율 교환
- 사업절차** 출판사 대상 도서 신청 공고(2월)→북토크 도서 선정(3월)→북토크 제작·배포(4~5월)  
→북토크 도서교환(5~10월)
- 전년대비 변경사항**
  - 초등 고학년(4~6학년) 및 중학생 대상 100,000장→초등 전체(1~6학년) 및 중학생 약 276,000장
  - 북토크 도서 113종(초등 고학년 74종, 중학생 39종)→북토크 도서 150여종 및 분류 세분화, 북토크 도서 시차 출판사 표지계약서 주소 변경 거트 등



정재만 본부장이 독서지원팀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 인문지원팀


윤혜정 인문지원팀 팀장은 생활문화시설 인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설명하며 사업 소개를 시작했다. 지역의 문화시설과 인문 전공자의 협업을 통한 자생적 인문 활동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전하며, 전국 단위 공공 및 민간 생활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인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력 및 문화시설 참여를 통한 지역 인문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여행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단절된 인적 교류, 정서적 공핍 등에 따른 인문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며, 전국 여행지, 코로나19 취약 계층 및 피해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주요 여행지 내에서 지역 문화 자원에 기초한 인문 강연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다양한 인문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및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인문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 및 대국민 서비스 인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사회문제해결 인문사업 제안 공모전과 한국판 테드(TED) 강연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오디오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인문교육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디지털 지역 인문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등 인문학의 발전을 장려하는 여러 사업들이 소개됐다.



###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인문지원팀



문화지원본부 인문지원팀장  
**윤혜정**

- 사업목적** 지역의 문화 시설과 인문 전공자의 협업을 통한 자생적 인문 활동 촉진
- 지원대상** 전국 단위 공공/민간 생활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인문 전공자
- 사업내용** 문화시설과 인문 전공자가 협업, 기획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지원(120건\*600만원)  
\*인문활동가-인문연구자, 인문연구자-일반 시민 협업을 통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등 기획사업 추가 운영 예정
- 사업절차** 사업 공고(1~2월), 사전 워크숍 개최(4월), 프로그램 운영(5~10월), 결과 워크숍 개최(11월)
- 전년대비 변경사항** 사회공헌형 인문프로그램 추가

윤혜정 팀장이 인문지원팀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 지역출판지원팀


박재용 지역출판팀 차장은 지역출판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사업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출판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울, 파주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출판문화 관련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출판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서전, 출판·독서 관련 행사, 전시관 운영, 지역 특화 도서 발간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출판/인쇄학교 운영 사업을 통해 지역출판 및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판/인쇄학교 운영 사업은 예비 출판/인쇄인, 지역시민, 학생 등을 교육 대상으로 진행되며 출판/인쇄 전자출판 교육과정, 출판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 과정, 출판/인쇄 창업 인력 양성 과정 등 총 세 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출판/인쇄에 대한 안목과 실력을 넓히는 실무교육으로 관련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서점 및 서적 유통사,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을 제외한 지역 중소형 서점이며, 저자 초청 강연회, 독서모임, 북콘서트,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역서점과 출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소개됐다.

### 지역출판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출판지원팀



문화지원본부 지역출판지원팀  
**박재용**



- 사업목적

지역 출판문화 관련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함으로써 지역 출판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출판산업관련 단체(기관) \*서울, 파주 지역 제외
- 사업내용

- 지원 분야 : 도서전, 전시관 운영, 독서모임 리더 네트워크 운영, 출판독서 관련 행사, 지역특화 도서 발간과 연계행사 진행 등
  - 총 14곳 선정 지원 : 2천만원 1곳, 1천만원 6곳, 5백만원 7곳 선정 지원
- 사업절차

- 사업공고(3월) → 선정 및 결과발표(3월~4월) → 협약 체결 및 교부금 교부(4월) → 사업진행(5월~11월) → 사업정산및실적보고서 제출(12월)

지역출판지원팀 사업을 소개하는 박재용 팀장


## 출판산업지원센터

마지막 발표를 맡은 권성남 출판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설명하며 사업 소개를 시작했다.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출판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판사 재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또한 출판기획, 편집디자인, 출판마케팅 등 여덟 개 과정을 운영하며, 수강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출판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글로벌 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세계 출판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출판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주요 도서전 참가, 출판트렌드 및 콘퍼런스 진행 등 해외 주요 출판사, 출판 유관기관 방문 연수가 진행되며, 출판계 및 기관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따라 해외 현지 방문 프로그램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을 설명했다. 출판콘텐츠 관련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 대한 사업 공간 지원과 역량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또한 24개의 보육실과 입주기업 교육,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입주기업 발간도서 제작 및 마케팅비 지원, 각종 도서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출판 경력자 재취업 지원 사업 등 출판산업의 영역 확장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소개됐다.

출판 전문인력 양성 출판산업지원센터



문화지원본부 출판산업지원센터장  
권성남

- 사업목적** • 출판사 재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출판계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 지원대상** •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출판사 재직자
- 사업내용**
  - 출판사 재직자(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교육
    - 출판기획, 편집디자인, 출판마케팅 등 8개 과정(20회) 운영
    - 협약기업 및 수강생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제공
  - 출판사 재직자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
    - 서면 및 방문 수요조사를 통해 출판사 재직자가 필요로 하는 과정 개발
    - 출판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수준별 교육체계 수립
- 사업절차** • 사업공고(2월) → 교육과정 운영 및 수요조사(3~10월) → 회계정산(12월) → 성과평가(1월)
- 전년대비 변경사항**
  - 교육 수요가 높은 출판기획 교육 강화(2개 → 4개)
  - KPIPA 디지털복센터 내 컴퓨터 실습(오디오북 실무자 양성) 운영

권성남 센터장이 출판산업지원센터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 202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 다시 보기

## 지역 서점의 가치 찾기

---

이정은(뜸오책방-발전소책방5협동조합 조합원)

2022. 2.

파주 교하 문발동 골목에 위치한 뜸오책방은 전국의 지역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책이 좋아서 함께 읽는 동네 사람들이 만들었다. 뜸오책방은 파주 교하에서의 삶을 고민하고, 서울에 살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 '교하'라는 장소와 '지금'이라는 시간에 방점을 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된다. 조합원이 운영한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의 제안에 따라 함께 읽기, 지역의 공방 체험 등 책과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는 독서 문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 마을 잡지를 만들고 지역 출판사의 책을 이웃이 낭독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그러다 보니 대형 서점의 매대나 인터넷 서점의 배너에서 만날 수 있는 책보다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분야의 책을 주로 입고한다. 어쩌다 베스트셀러를 찾는 손님이 오면 늘 죄송하다고 답해야 하는 책방지기들이지만 책방에 들인 책을 정성을 다해 소개할 때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한다.

작은 지역 서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모두 갖춰 놓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책방지기는 대형 출판사에서 나오는 유명 작가의 책뿐만 아니라 소형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 사이에서 어떤 것을 입고할 것인가를 늘 고민한다. 지역 서점의 좁은 공간과 열악한 경제력을 고려했을 때 무턱대고 마구 들여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입고할 도서, 도매가로 인한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 서점을 애용하는 이웃들은 꼭 필요한 책을 직접 주문하기도 하고, 관심 분야의 책을 추천받기도 하고, 책방지기가 입고한 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을 산다. 매대에서 자신이 원하던 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손님의 미소야말로 책방지기가 내일도 책방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큰 힘이다. 그렇게 지역 서점은 책방지기와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책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다.

뜸오책방과 같이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지역 서점은 파는 책과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다. 그만큼 다양한 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독자를 찾아간다. 지역 서점은 책을 읽은 후 토론을 하거나, 함께 소리 내어 읽거나, 책과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등 오감으로 책과 이웃을 만나고 서로에게 책이 되어주는 공간이다. 서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책이라는 물건을 파는 상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독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각자의 판단 기준은 다르겠지만 지역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독서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책방 문을 연다.





점책방에서 운영 중인 지역 서점의 색깔을 맞출 수 있는 큐레이션

2017년 서적 도매상인 송인의 1차 부도가 발생했다. 대형 오프라인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과는 다르게 서적 도매상에 의존하여 책을 공급받던 지역 서점은 운영이 더욱 힘들어졌다. 지역 서점은 출판사와의 직거래도 쉽지 않고 도매상 거래도 인터넷 서점과의 공급률 차이가 커서 도서 판매에 따른 수익도 적다. 도매상도 종수는 다양하고 주문 권수는 적은 지역 서점과의 거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겨우 버텨가던 지역 서점에게 송인의 부도는 더 이상의 서점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였다. 새로운 출판물과 직접 만나고 책을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는 지역 서점이 고사 위기에 빠지자 경기도에서는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적극적인 지역 서점 살리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역의 공공기관이 지역 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매하고 다양한 책 생태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경기도 인증서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인증서점 제도는 각각의 이해관계 등 많은 문제점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역 서점의 역할을 지원하여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지역 서점의 수는 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서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활발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9년 도서정가제 개악을 막기 위한 여러 단체의 적극적 저지 운동에 이어, 도종환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의로 지역서점활성화안을 포함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었다. 2021년에 의결되어 2022년 2월 11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서점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 규정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운영하던 지역 서점 활성화 방안들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근간을 만든 것이다. 법률로 정해진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지역 서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서점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서점은 불특정 다수의 지역민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매장을 둔 서적 소매업으로 중소기업자가 경영해야 한다. 따라서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만을 한 납품 전문 업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 서점은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과는 다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관할 지역의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 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할 수 있고', '독려해야 한다'이다. 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까지 고생한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2020년 이후로 경기도에서는 기존 납품 전문 업체와 전집류 전문 업체 등의 반발로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경기도 P시에서는 공무원이 도서관장과 지역 서점 대표를 고발했다. 기존 납품 업체가 아닌 '능력 없는' 지역 서점에서 납품을 진행한 것이 뇌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고발한 공무원은 경기도 지역 서점 인증 제도에 의한 납품임을 알면서도 고발을 진행했고, 무혐의 불송치가 결정된 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업종에서 지역 서점을 제외했다. 그 이유가 교보문고나 예스24, 알라딘과 같은 온라인 업종과 같은 대기업을 포함한 결과라고 한다. 개정안이나 2019년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사 위기의 지역 서점과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매출 평균을 낸 것이다. 이렇듯 개정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에 따른, 지역자치단체에 따른 고무줄 잣대로 지역 서점은 매번 새로운 위기를 맞이한다. 법안의 모호함이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모호한 개정안에 따른 시끄러움은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을 하는 담당 공무원의 의지를 박탈한다. 책 생태계라는 커다란 그물망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상생하려는 의지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 서점 안에서도 그 형태와 운영 방식은 다양하다. 그러한 다양성이 책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런 서점, 저런 서점으로 나뉘고 갈리는 것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지역에서 서점을 문 닫지 않기 위해 십수 년간 고생한 학교 앞 서점 대표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면서도 자신이 파는 책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포기 못하는 서점 대표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공모 사업에 당선 되면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을 못 받아도 자신의 기획력을 갈아 넣으며 문화 사업을 하는 서점과 당장의 생활비를 위해 문화 사업 지원은 꿈도 못 꾸는 서점으로 나뉘지 않기를 바란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서점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독서 문화 사업을 이끌어가는 단체의 수익도 소중하지만,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서점이 생기는 그들만의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역 서점 인증 제도의 목적이고, 다양한 책이 전시되고 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거점으로서의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한 개정안의 목표이어야 하지 않을까.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안이 보다 확실하게 지역 서점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책 생태계 관련 업종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토론의 자리도 필요하겠다. 빠른 결론을 내리는 자리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 자체 말이다.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의 해 추진단으로 활동하면서 배운 것이 많다. 추진단에 참여한 각 단체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힘을 모을 때와 일을 나눌 때의 유기적인 움직임에서 함께한다는 것의 힘

을 느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나눌 것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즐거웠다. 지방자치단체나 각 공공기관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다.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위원회도 아직 많겠지만 다름과 상생을 고민하는 곳도 늘어가고 있다. 내가 사는 파주시에서는 2020년 도서관과 서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서 납품에 대한 논의를 했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번밖에 모이지 못해 아쉬웠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아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간 것이 아니겠는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 생태계의 그물망을 이루는 도서관, 지역 출판사, 서점, 독자 등이 모여 고민하고, 다투고, 상생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서점의 노하우를 지역 선배로부터 배우고, 문화 기획의 여유가 없는 서점에도 함께 사업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남으면 좋겠다.



점오책방 조합원들과 함께 한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 퍼포먼스

도서정가제도 지역 서점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 장치이다. 이번 개정안에 도서정가제의 규제 강화·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0년 도서정가제 개악 저지 운동을 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3년마다 진통을 겪어야 한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법률을 근거로 1년간 민관협의체를 열어 현행 도서정가제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개선안에 합의하고도 일방적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민관이 함께 1년 동안 합의안을 만들어도 장관이 뒤집으려면 뒤집어 지는 것이 도서정가제다. 책이 단순한 상품이 아닌 공공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유지·발전시켜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안을 무시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도서정가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고, 합의를 도출한 것은 지켜져야 하며, 3년마다 벌어지는 불필요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출판물의 유통 구조 개혁도 시급하다. 지난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2020년 9월~2021년 8월)간 성인의 연간 평균 종합독서량은 4.5권으로 나왔다. 성인이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대한민국에서 책을 만들고, 책을 파는 출판사와 지역 서점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도서 유통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터넷 서점의 2021년 수익은 늘고 오프라인 서점의 판매율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 서점은 도매 입고율도 인터넷 서점보다 높고, 아예 도매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책도 많다. 이러한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역 서점의 안정화가 어렵다. 작은 출판사와도 거래가 잘 되어야 나름의 색깔을 유지하는 지역 서점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지역 서점은 어디에서는 폐업을 하면서도 다른 어디에서는 새롭게 문을 연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문화 활동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역의 문화·예술 사랑방 역할에 힘을 쓰고 있다. 지역 서점은 책 생태계의 말초혈관이다. 출판의 종 다양성을 위한 기초 단위이다. 책을 권하고,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에게 책이 되어 주는 오감만족의 공유 공간이다. 앞으로도 지역 서점이 지역의 도서관과 손을 잡고, 지역의 출판사와 함께 작가를 만나고, 세상을 만나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 지역 서점만이 아닌, 저자와 출판사 등 '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모을 시간을 기다린다.



---

#### 이정은(점오책방-발전소책방5협동조합 조합원)

동네에서는 '이마담'으로 불린다. 아직도 세상에 관심거리가 너무 많아 피곤하다. 동생을 따라 유럽에 자전거 여행을 가겠다고 나이 마흔 넘어 자전거를 배웠다. 유럽 4개국 1,800km를 달린 무한체력으로 책도 냈지만 남은 에너지는 술술 바닥을 보인다. 이제는 교하 문발동의 골목 어딘가에서 새로운 놀이를 작당하는 중이다.

jungeune0516@gmail.com

<http://www.instagram.com/booksdot5>

<http://www.facebook.com/booksdot5>

## 프로 성우가 생각하는 오디오북 시장

---

서혜정(성우, '서혜정 낭독연구소' 대표)

2022. 2.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렸을 때, 성우 데뷔 20주년을 맞이하여 야심찬 마음으로 『한국단편소설 100선』 오디오북 제작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람들은 오디오북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오디오북 시장도 강의 테이프가 대부분이던 상황에서 열정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결과는 뻔했다. 아 파트 한 채가 날아갔고… 그 후로 20년이 흘렀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오디오북 시장이 열리고 있는 현실을 기사화하며 필자를 '오디오북의 시조새'라 소개하기도 했다. 실패한 시조새가 되어 살짝 부끄럽기도 했었다.

몇 해 전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도서에 한하여 각 출판사에 오디오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대형 출판사는 제작비를 들여 오디오북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 '월라'나 '밀리익서재'와 같은 오디오북 플랫폼이 탄생했고, '월라'의 경우 오디오북 자체 제작도 하고 있다. 이제 드디어 오디오북 세상이 열린 것이다.

성우는 목소리 연기자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내레이션을 비롯해, 기업체의 홍보 내레이션 등을 녹음하다 보니 오디오북을 녹음하는 데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오디오북은 말 그대로 듣는 책이어서, 목소리에 의존하여 책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정확한 발음과 듣기 좋은 발성은 필수 사항이고, 문장을 이해하며 글의 표면적인 뜻과 이면의 의미까지도 전달해야 한다. 프로 성우는 그런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떤 오디오북은 성우가 아닌 배우나,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나 신선해서 귀를 꼭 잡고 놓지 않는 목소리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성우로써 얼굴이 붉어지기도 한다. 프로 성우들은 입을 여는 순간 프로 냄새가 풀풀 나기 때문에 참신하고 풋풋한 정서를 전달하는 책은 잘 맞지 않기도 하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책이 오디오북으로 제작되고 있고, 그 많은 책들은 각각 다양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책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감성을 자극하기도 한다. 소설에서도 장르가 나뉘어 달달한 로맨스가 있는가 하면 가슴을 졸이게 하는 추리소설도 있다. 무협 판타지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웹소설이 해외 수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배역이 많이 나와 인물마다 목소리를 구분하며 흥미진진하게 낭독해야 하는 소설의 경우, 프로 성우가 녹음하면 청자들은 다 듣고 난 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연령을 초월하여 풋풋한 감성이 녹아나는 책일 경우는 성우나 배우가 아닌 일반인들이 낭독했을 때 그 정서가 그대로 살아나 감동을 주기도 한다. 낭독이 살짝 서툴러서 책의 느낌을 더 잘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작가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책은 작가가 직접 낭독했을 때 느낌이 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인이든, 작가든 낭독을 잘했을 경우이다. 발음도 비교적 들을 만하고 발성도 깨끗해야 한다. 몇 해 전 어느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낭독해, 성우가 녹음한 오디오북보다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일으킨 적도 있다.

오디오북 한 권을 만들려면 적어도 몇 백만 원의 비용이 든다. 각 출판사마다 수십 권에서 수백, 수천 권 이상은 만들어 놓아야 오디오북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TTS(Text-To-Speech: 문자음성 자동 변환)로도 많이 제작되고, 요즘은 AI 목소리로도 소개하고 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 오히려 사람이 직접 읽은 오디오북보다 TTS가 더 좋다는 사람들도 있다. 프로 성우로서 반성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글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기에 목소리 연기자인 성우는 낭독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감정이 이입되어 듣는 사람의 감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개인의 감성은 각자의 DNA와 같은 것이어서 같은 글이어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낭독자의 감정이 이입되었을 경우 청자의 감성과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TTS로 들을 때 글의 느낌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받아들이며 즐기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글의 내용과 함께 낭독자의 감성까지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목소리가 듣기 좋아 책을 들으며 목소리까지 즐기는 경우이다. 그런 경우 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낭독자가 녹음한 오디오북만을 찾아 듣기도 한다. 이렇게 취향이 다르다 보니 오디오북 시장에서 TTS, AI, 프로 성우, 일반인, 작가 등 다양한 내레이터들이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 한 권의 책을 장시간 지속하여 녹음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 책 한 권을 300쪽 기준으로 볼 때, 책 내용에 따라 호흡이 달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완성 파일의 재생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이상까지 되기도 한다. 1시간의 완성 파일이 만들어지기까지 프로 성우의 경우 녹음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하며, 일반인의 경우는 3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편집까지 완성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작되어 받는 수고료가 프로 성우의 경우 완성 시간 1시간에 20만 원정도이며 그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현재 북 내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인의 경우는 10만 원 전후로 알고 있다. 목소리는 컨디션과 직결된다.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며 1시간 정도 녹음하면 휴식을 취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3시간 정도를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해야 완성 파일이 1시간 정도 나온다. 스튜디오에 오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1시간의 완성 파일을 만들기 위해 예독(豫讀)하는 시간까지 하루가 소요된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한 달에 한두 권 이상은 녹음을 할 수가 없다.

오디오북을 납품하기 전 파일의 상태를 체크하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가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디오북은 대부분 휴대폰이나 차 안에서 듣는다. 물론 음질이 깨끗해서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외부 소음이 없고 기계 소음이 방해되지 않는다면 휴대폰으로 녹음해도 듣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며 필자는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녹음해 유튜브 방송용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완성된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 차 안이야말로 녹음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집에서 녹음하면 오히려 공간의 울림이 있기도 한데, 차 안은 적당한 공간이 스튜디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용한 환경에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녹음하면 짹짹이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다. 또 각자의 집에 홈 레코딩 시스템을 갖추고 녹음과 편집까지 완성해 직접 오디오북을 만들 수도 있다.



오디오북 녹음중인 모습과 녹음 스튜디오

오디오북 시장이 열렸다. 산업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디오북의 꽃은 내레이터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프로 성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는 전문 오디오북 내레이터가 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해 전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북 내레이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발성으로 끝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필자 또한 강사로 출강하였으나 내레이터는 지식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방법만 가르쳐서는 혼자서 완성하기에 어려움이 무척 많은 것이다. 프로는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 재능으로 되는 일도 아니며 목소리만 좋다고 되지도 않는다. 북 내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책을 좋아해야 하고 목소리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발음을 배우고 발성을 배우며 문장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감성으로 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낭독’은 사전적 의미로는 책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다. 북 내레이터가 되려면 낭독을 잘해야 하는데, 북 내레이터의 낭독은 단순히 책을 소리 내어 읽어 녹음하는 것이 아니다. 책 내용을 분석하여 작가의 글을 이해하고, 책의 정서와 맞는 객관적인 감성으로 끊어 읽기와 억양, 악센트 등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책 속의 내용을 고스란히 잘 전달해주는 이야기꾼이다. 그러한 북 내레이터가 많이 양성되어야 건강한 오디오북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내레이터 외에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오디오북의 꽃인 북 내레이터가 다양해지지 않는다면 오디오북 시장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디오북의 시조새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은 필자는 그래서 ‘서혜정 낭독연구소’를 만들어 우리나라 최초로 북 내레이터를 양성하고 있다(세계 최초일지도 모르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음). 녹음부터 편집까지 전 과정을 거쳐 완성된 오디오북을 만드는 전문 북 내레이터를 양성하는 곳이다. 현재 오디오북은 대부분 서울에서 제작되고, 스튜디오를 통해 녹음하고 있다. ‘서혜정 낭독연구소’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브라질 등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도 참여하고 있다. 모두 책을 사랑하고 목소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 낭독연구소에서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성우들이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강사 중에는 오디오북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다. 2022년 1월부터는 겨울방학동안 초등학교, 중학교도 참여해 교과서로 낭독 훈련을 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아파트 한 채 만큼의 수업료를 톡톡히 지불한 경험으로 자본을 들이지 않고 시작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소명감까지 생겼다(이번에 느낀 건데 소명감은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같다).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퇴직한 도서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학교 교사도 있고, 전업주부, 무직자, 대학생, 현직 도서관 관계자, 국어학원 원장, 출판사 대표 등 매우 다양하다.



필자는 북 내레이터 직업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전문 북 내레이터가 속속 배출되어 오디오북 산업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프로 성우가 필요한 분야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배우의 목소리가 더 잘 어울리는 책이 있고, 작가가 직접 낭독하여 그 책의 정수를 느낄 수도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낭독하면 참 좋은 책들도 있다. 연령과 세대를 뛰어넘어 다양한 계층에서 북 내레이터가 배출된다면 대한민국의 오디오북 시장은 매우 건강하게 산업화될 것이다.

책을 읽기에 너무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오디오북은 짬짬이 차 안이나 지하철에서 들을 수 있고, 잠자리에서 이어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는 독서 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오디오북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10~20년 전에는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웹소설의 인기와 더불어 오디오 콘텐츠가 부상하는 흐름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오디오북 세상이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K-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의 청소년들이 많아진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신호다.

오디오북은 사람의 감성까지도 매만져 준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기 때문이다. 잘 다듬어진 목소리로 낭독한 오디오북 한 권을 들으면 마음의 위안이 될뿐더러 치유까지도 될 수 있다. 목소리는 에너지여서, 발화하는 말 속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요즘,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책 한 권을 들으며 휴식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대한민국의 오디오북 산업이 우뚝 솟아올라 일자리 또한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며……



---

#### 서혜정(성우, '서혜정 낭독연구소' 대표)

1982년 KBS 17기 성우 공채 입사로 성우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는 한국성우협회 소속 성우이자 한국예술원 겸 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모토로 ‘서혜정 낭독연구소’를 만들었다. 'X파일 스킨리', '롤러코스터' 목소리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저서로는 『나에게, 낭독(공저)』, 『성우(공저)』, 『인생에서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공저)』, 『속상해 하지 마세요』가 있다.

heajung62@hanmail.net



## 사서가 말하는 책 이야기

-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만난 '책'이라는 마음 백신 -

김은미(이천시립마장도서관 팀장)

2022. 2.

### # 밥을 먹듯 책을 읽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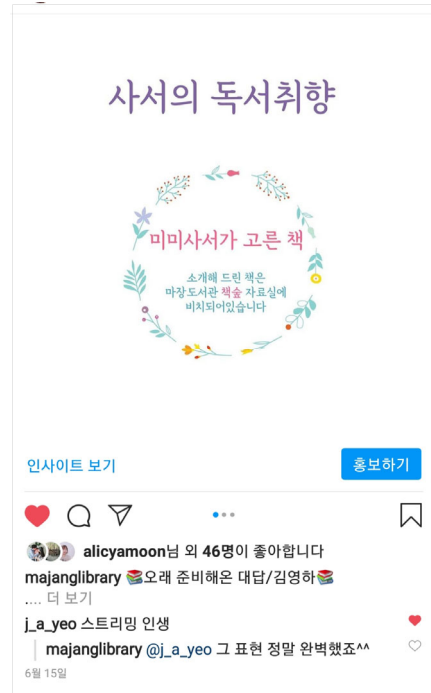
언젠가부터 책을 읽는 것이 불편해졌다. 또렷했던 글자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노안'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온 것이다. 바늘에 실을 꿰기 위해 바늘을 눈앞에서 최대한 멀리 보내던 할머니의 모습, 신문을 보기 위해 끼고 있던 안경을 위로 올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하지만 급격히 떨어진 시력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제 곧 돋보기를 맞춰야 할 것 같다. 필자에게 '책을 읽는다'는 행위와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크게 다르지 않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듯이 책을 읽지 않으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필자의 가방 속에는 늘 책 한 권이 들어 있다.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질 땐 늘 책을 꺼낸다. '잠들기 전 독서'는 삶의 루틴이다. 그렇게 일 년에 15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독서 후에는 좋은 문장을 발췌하고 느낌을 정리해 개인 블로그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개인 SNS에 축적한 사적인 독서 기록은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재구성하여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 활용하기도 한다. 자료실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장 크루's Pick' 코너와 마장도서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미미사서의 독서취향' 코너가 그것이다.

망망대해와도 같은 책의 바다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꼭 필요한 책을 적시에 정확히 건져 올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사서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에 미미사서의 독서력과 전투력은 매일 매일 상승하고 있다.



'마장 크루's Pick' 코너



마장도서관 인스타그램의 '미미사서의 독서취향'

## # 책 중심의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은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이 타 문화센터와 다른 점이라면 '책'이 중심이라는 점이다. 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의 종착지는 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서의 독서력이 매우 중요하다. 독서력이 뛰어난 사서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우리 도서관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책'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결과,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난 2020년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기회들과 만날 수 있었고 도전했던 목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2020년에는 '내 방 안의 도서관'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책 읽기의 다양성을 꾀하였고, 책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한 결과 '코로나 블루'가 침투할 틈을 내주지 않았다. 또한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독서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고독한방: 고요한 밤 독서로 만난 한 줄 문장의 방', '사면지책 털기: 사놓고 읽지 않아 먼지만 쌓인 책 털기' 독서모임을 통해 사담이나 잡음 없이 문장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몰입독서를 이끌어 냈다. '도서관 책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참여 규칙이었던 '사면지책 털기'모임은 기획 의도가 참신하다는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독서 인구 증가를 위해 무조건 도서관 책을 읽으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지책 털기' 참여자들은 다른 책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먼지 쌓인 책을 펼칠 수 있어 좋았고, 책을 구입했을 때 혹은 선물로 받았을 때의 설렘을 기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애기했다. 집에 있는 책들의 먼지를 제대로 털었으니 이제 도서관 책장을 한번 털어보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우리 집 책’ 읽기에서 ‘도서관 책’ 읽기로 독서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였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처럼 책 읽기는 자발적이면서 즐거운 활동이어야 한다. 시민들이 즐거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것이 사서의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사서의 존재감도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때로는 사서의 역량이 도서관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사면지책 털기’ 홍보문과 오픈 채팅방 운영 모습



‘고독한방’ 전시회 모습

## # 다독가, 작가와의 만남

‘사서는 다독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강연자 섭외와 관련이 있다. 시민들과 작가가 만날 수 있는 인문학적 소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서는 출판계의 동향과 작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독’밖에 방법이 없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지도 있는 강연자를 초청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강연료 기준에 갭이 발생할 경우 섭외 메일의 진정성과 간절함의 정도가 강연 수락 여부를 좌우하기도 한다. 필자는 섭외 메일을 쓰기 전에 가능하면 작가의 전작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책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며, 작가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팬심을 담아 작품에서 느낀 감동을 표현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2021년 말 우리 도서관에 강연자로 오셨던 이재갑 교수님(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게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귀한 시간을 쪼개어 우리 도서관 강연자로 오신 교수님께서 “메일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도저히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말하기를 말하기』의 김하나 작가님은 “이거야말로 영화 <대부>의 대사처럼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네요. 일단 두팔식으로 “좋습니다!”라고 호쾌하게 대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성 가득한 메일에 감동했어요.”라고 말씀하셨다. 『단순한 진심』의 조해진 작가님은 “제 소설을 좋게 읽어 주셔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일하시는 모습에, 사서님의 메일을 읽고 여운이 참 오래 갑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청을 수락해 주셨다. 번역가 권남희 작가님은 “강연 의뢰 메일을 받고 너무나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저한테뿐만 아니라 의뢰 메일을 보낼 때마다 이렇게 정성을 들어서 보내실 텐데, 정말 대단하시다고 감탄, 감탄했습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메일을 보내 주셨다. 그러나 쓰는 일과 말하는 일이 같지 않음을 수줍게 고백하시며 강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셔서 오히려 필자를 감동시키셨다. 특히 『말 그릇』의 김윤나 작가님 섭외 성공기는 매우 드라마틱했다. 첫 번째 강연 요청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거절할 수밖에 없음을 미안해 하셨다.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르고 『당신을 믿어요』(김윤나, 카시오페아, 2019)를 읽는 도중, 책 속에서 뭔가 낯익은 에피소드를 발견했다. 김윤나 작가님을 섭외하기 위해 필자가 보냈던 메일의 내용이 하나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특별한 인연을 핑계 삼아 작가님을 섭외하기 위한 두 번째 메일을 발송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한 권의 책이 소중한 인연으로 연결해주는 ‘붉은 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 # 도서관과 책방

이쯤에서 필자의 진짜 취미를 고백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작은 공간이지만 책방지기의 취향과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동네책방을 구경하는 것을 매우 즐긴다. 도서관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동네책방이 주는 푸근함이 참 좋아서다. 책방에서 우연히 만난 귀한 책 한 권을 사들고 나올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온라인 서점에서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할 때는 결코 느낄 수 없는 희열이다. 수많은 책들을 스쳐 지나간 후 결국 내 손에 들어온 책 한 권이 주는 의미는 특별하다. 그 특별함은 대부분 깊이 있는 독서로 연결된다. 많은 사람들이 책방 골목을 한가로이 누비고 책을 고르는 풍경이 자주 목격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유이다. 영화를 보고, 공연을 감상하는 것과 더불어 책방 투어가 취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책방지기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필자는 우리 도서관 북큐레이션에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동네책방에서 많이 얻었고, 책방에서 현장 수서한 독립출판물을 특성화 도서로 선택해서 장서 구축을 하기도 했다. 필자는 도서관과 책방이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책은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우리들의 삶을 살찌우기 때문이다.



동네책방



독립출판물을 주제로 한 장서 구축 모습

## # 책모임과 책 친구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쉽게 친구가 되곤 한다. 대화의 주제가 넓고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함께 읽고 토론하는 책모임을 통해 독서력을 키워나간다. 책모임에서 만난 사서와 이용자 역시 좋은 책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권하고, 책 이야기를 나누고, 감동을 서로 공유하다 보면 독서력은 향상되고 친밀도는 높아진다. 책 인연으로 만난 사서와 이용자 간의 끈끈한 연대와 믿음은 도서관이 성장하는 데 있어 든든한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모임을 파생시켜 독서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좋은 책 친구를 옆에 두고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좋은 여행지를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필자는 여전히 책모임에서 만난 이용자와 꾸준히 책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좋은 책을 발견하면 소개해 주기도 하고, 새로운 책모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도서관 홍보가 필요할 땐 책 친구들이 총출동하여 일등 홍보대사가 되어 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다. 그들은 책 친구이자 우리 도서관의 든든한 ‘백(Back Ground)’이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다정한 책 친구 한 명쯤 곁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책’이라는 마음 백신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만큼 도서관 안에서도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소통과 나눔의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이동하였고, 각자의 안전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도서관은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단절과 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응급실 역할을 해야만 했다. 생활 방역과 더불어 마음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그 중심에 도서관이 있었다. 이제는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돌보고 치유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책’이라는 마음 백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맞아도 부작용은 없으니까 모두가 기꺼이 마음 백신을 맞기 바란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교류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나의 움직임이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은 자연스럽게 멈춤을 선택하게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멈춤의 시간을 그저 버텨내려 애쓰기보다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인문학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 책들을 집중해서 읽어보기를 사서로서 권한다. 책 한 권이 주는 묵직한 위로를 경험하다 보면 삶의 태도와 방향에 많은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 김은미 (이천시립마장도서관 팀장)

현재 이천시립마장도서관 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25년차 사서이다. 도서관 일이 여전히 너무 재미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사람을 읽는 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사서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2020년에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제14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한국사서협회 주관 ‘제1회 한국사서상’ 공공도서관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woori74@korea.kr

## [인터뷰] 대사에게 듣는 노르웨이의 책문화

- 주한 노르웨이 대사 프로데 솔베르그(Frode Solberg)

---

2022. 2.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된 노르웨이는 대자연이 선사하는 멋진 풍경과, 높은 수준의 복지 체계가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나라로도 유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독서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중 40%는 매년 10권 이상 책을 읽는다는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책문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국과 노르웨이의 문화 교류에 힘쓰고 있는 프로데 솔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만났다.



사진: 신빛



**〈출판N〉에 프로데 솔베르그 대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독자들에게 소개와 인사말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판N〉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 프로데 솔베르그입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외교관으로서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30여 년 동안 노르웨이를 비롯해 다른 여러 국가들을 오가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르웨이는 ‘복지의 나라’, ‘언어의 나라’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님이 생각하시는 노르웨이의 특징이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한국의 많은 분들께 노르웨이는 해양국가라는 점, 유명한 노르웨이 수산물, 그리고 언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오르 해안과 무수한 섬들로 구성된 노르웨이의 해안선은 북극권 끝까지 쭉 뻗어 있으며 그 길이는 100,000km가 넘어 노르웨이는 유럽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는 기막힌 절경과 피오르 해안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바다와의 친밀함과 해안마을에서의 생활은 노르웨이 문학과 예술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노르웨이는 체계적인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 하에 지난 수년에 걸쳐 구축된 체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르웨이의 가장 큰 강점은 상호신뢰와 평등,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근접성 등의 가치와 이상이 우리 사회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노르웨이의 역사는 다양성과 다문화로 점철되어왔는데, 이 또한 우리의 문화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학에서도 관련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대사로서 특히 한국과 노르웨이의 문화 교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예술과 문화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생각과 및 견해 교류에 있어 중추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및 경제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 분야 역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문화 교류 분야는 특히 최근 수년간 크게 성장하였으며 새로운 분야들로 그 협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의 예술가들은 오늘날 미술, 공예, 음악, 키네틱 아트, 연극 등 광범위한 예술 분야에서 협동하고 있죠.

예술가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번역과 해외 독자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사로써 한국에서 만남의 장과 문화적 대화 등을 주최하고 예술가들과 활동가(actors)들을 연결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난 2년은 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조만간 여행이 가능해지고 좀 더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먼저 저희 대사관은 2021년 10월 뭉크 미술관의 신규 개장을 기념하며 개최된 온라인 기자회견에 한국 기자들을 초대했으며, 한국 언론에 새로운 뭉크 미술관뿐만 아니라 뭉크의 예술과 생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는 대사로서 한국 분들에게 노르웨이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곤 하는데요. 가령, 아리랑TV의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르웨이 음식, 뭉크의 예술, 그리고 K-pop 관련 협력 등 한국 시청자 분들께 노르웨이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노르웨이 국민의 독서 문화는 어떠한지 소개해 주세요.

노르웨이 국민들은 대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어느 날이든 간에 4명 중 1명은 책을 읽고 있으며, 국민 중 40%는 매년 책을 10권 이상 읽습니다. 소설과 단편이 가장 인기가 많지만, 성별 간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남성 독자들이 여성 독자보다 논픽션(non-fiction)을 더 자주 찾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노르웨이도 다른 나라가 겪는 문제들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오디오북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가 시장을 점유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문학에 대한 총 소비는 꾸준한 편입니다.

문학에 대한 굳건한 대중적 지지는 노르웨이가 현재 수준까지의 문학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어준 요소 중 하나입니다. 노르웨이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5,300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견실하고 활성화된 문학 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노르웨이 문학의 다양성, 문학성 및 국내·외로의 확산은 노르웨이 고유의 문학 시스템에 기인하는데, 예컨대 도서정가제, 노르웨이 정부의 신규 도서 구매 할당제도, 종이책 VAT 면제, 그리고 권리권자 간의 단체 협약 등이 있습니다.

### 노르웨이에서는 요즘 어떤 책이 주목을 받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르웨이의 문학은 모든 장르에 걸쳐 나타나는 광범위한 다양성과 뚜렷한 목소리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20년을 노르웨이 문학계의 황금기라고 하곤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해외 출판시장이 노르웨이 문학에 눈을 떴고, 더욱 더 많은 작가의 작품들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어로 번역 및 출간된 작가들을 몇 분 꼽자면, 유명 범죄소설 작가 요 네스뵈(Jo Nesbø)를 비롯해 올해 한국에 출간될 예정인 『나의 투쟁(원제: My Struggle) 1-6권』의 작가인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Karl Ove Knausgård)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 시장에 출간한 다른 작가들로는 린 울만(Linn Ullmann)과 요슈타인 가아더(Jostein Gaarder), 마야 룬데(Maja Lunde)가 있습니다. 이 작가들의 책들은 모두 노르웨이에서 화제가 되며 대중적으로 읽힙니다.

## 노르웨이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책 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한데요, 책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르웨이는 혼합형 시장경제라는 특별한 문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 시스템은 노르웨이 고유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르웨이의 민족 문학은 노르웨이가 1814년 덴마크-노르웨이 동군연합에서 독립한 후 국가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부 또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통되는 책들이 나중에 전국적으로 같은 값에 구매될 수 있도록 보장했죠. 이러한 도서정가제는 문학 작품의 유통 및 언어 정책에 있어 근간이 되어주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노르웨이서점협회(Norwegian Booksellers Association)와 노르웨이출판사협회(Norwegian Publishers Association) 간의 협약을 통해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출판 산업의 중추적인 틀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전국적인 서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문학 분야 촉진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인 편입니다. 지원 제도를 예를 들면, 도서관의 도서 구매 공제와 서점의 구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작가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있습니다. 작가들이 자기만의 문학 스타일을 찾기 전까지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이로써 노르웨이에서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비롯해 수많은 작가와 장르, 테마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 노르웨이가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르웨이에는 4-5개의 대형 체인과 150여 개의 독립서점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도서들은 VAT 면제 상품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규모 서점을 위한 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책과 문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작가 초대나 마케팅, 문화 행사 등에서 사용됩니다.

## 노르웨이를 잘 알 수 있는 책을 추천해주신다면 무엇이 있나요?

노르웨이는 모든 장르에 있어 풍부하고 다양한 현대 문학을 자랑합니다. 해외로 수출되는 책들은 철학부터 시작해 심리학, 뜨개질, 수공예까지 모든 주제를 아우릅니다. 노르웨이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 분들께는 픽션 및 논픽션 작품을 모두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많이 저서가 번역되고 또 잘 알려진 작가 중에는 요 네스뵈(Jo Nesbø)가 있습니다. 노르딕 누아르(Nordic Noir)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이라면 매번 추천하는 작가입니다. 또한 로이 야콥센(Roy Jacobsen)의 『보이지 않는 것들(The Unseen)』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데, 지난해 한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배경은 20세기 초로, 노르웨이 북쪽 해안 너머에 있는 바레이(Barrøy) 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사람과 자연, 문화를 묘사하는 방식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독자들을 관찰해보니, 교양과 인문학, 예컨대 철학과 역사에 관한 책이 인기가 있더군요. 그래서 요슈타인 가아더(Jostein Gaarder)의 저서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작가의 가장 잘 알려진 책은 『소피의 세계(원제: Sophie's World: A Novel About the History of Philosophy)』라는 소설입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와 얽혀 있는 노르웨이 문화의 역사에 대해, 그리고 노르웨이인 소녀 소피의 상상 속 이야기에 대해 궁금한 모든 분들이라면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독창성 있는 소설입니다.

참, 요슈타인 가아더의 저서 중 『꼭두각시 조종사(Dukkeførereren)』와 『밤의 유서(Akkurat passe)』가 지난해 한국에서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최초로 헨릭 입센(Henrik Ibsen, 1828-1906)의 전 작품이 한국어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헨릭 입센의 희곡 중 대부분이 노르웨이를 배경으로 하며, 책 속 이야기에는 그가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번 출간을 계기로 헨릭 입센이 한국의 연극 애호가들과 일반 대중에게 더욱 더 잘 알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채널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핸드폰과 컴퓨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소소한 즐거움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실제로 책을 읽는다는 건, 그러니까 글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장면과 아이디어를 상상하는 그 과정은 여전히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독서를 계속해서 즐기세요!

---

번역: 이은혜

## 원작을 빛나게 할 좋은 번역이란

승주연(번역가)

2022. 2.

### 번역을 하게 될 줄은...

러시아에서 언어학 석사 공부를 하고 있던 시절, 본의 아니게 교회에서 설교 통역을 하게 되었다. 설교는 많이 듣고 자랐고 성경도 꽤 많이 읽었다고 자부하지만 통역은 또 다른 문제였다.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일주일 전에 주시면 열심히 러시아어로 번역한 후 현지인의 감수를 받았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타의에 의해 갈고 닦은 실력은 당시 감수를 봐주던 러시아 친구에 의하면 나름 일취월장했다. 물론 그때는 내가 번역을, 그것도 한국 소설을 러시아어로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유학을 떠나기 전, 가정 형편 때문에 유학이 아니라 당장 취직을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어야 했지만, 장녀인 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결심을 했다. 무려 유학, 그것도 석사를 하고 오겠다는 야심찬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올랐다.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바로 일을 찾아서 유학으로 진 빛을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했다. 유학을 마친 나는 귀국만 하면, 러시아어만 잘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의 실정을 거의 접하지 못했던 나는 또 다시 무한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이 놀라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 유학 시절 통번역 대학원 출신들이 차린 러시아어 학원 이야기를 들은 기억을 더듬어서 러시아어 전문센터 뷔쉬킨하우스에 문을 두드렸고, 간단한 면접을 거친 후에 바로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격일로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면서 몸도 지치지만, 학원의 특성상 매월 수입이 일정치 않았다. 나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석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

## 공지영 작가의 『봉순이 언니』를 번역하게 되다

내 이름 세 글자를 이 세상에 남기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책을 번역하고 싶어졌고,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학번역원이라는 기관을 알게 되었다.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카짜라는 친구도 한국에 와 있어서 나는 카짜와 함께 공지영 작가의 『봉순이 언니』를 번역하기로 하고 작가님께 연락해서 작가 동의서를 받았다.

이때부터 우리는 거의 7~8개월에 걸쳐서 샘플 번역 원고를 비롯한 수많은 서류를 준비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두 달을 경험한 후 우리는 2005년 12월 7일에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가 번역한 샘플 번역이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때의 심사평은 아래와 같았다.

‘러시아어권에서는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가 최종 심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번역 역시 내·외국인 심사자들에게 고른 점수를 받은 바 있어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4년에 모스크바에서 출간된 『봉순이 언니』 번역본

솔직 담백한 심사 결과를 접하고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렇게 해서 준비 기간만 7~8개월에 심사에만 두 달이 소요된 우리의 첫 번째 한국 소설 번역 도전은 우리가 기대한 가슴 설레는 결과를 가져와주었다.





한국문학번역원과 이화여자대학교통번역대학원, BK21+번역전문인재양성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6회 세계번역가대회(2014)에서 러시아어권 대표로 발제하는 모습이다.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김애란 작가의 단편집 『침이 고인다』,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정이현 작가의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천명관 작가의 장편소설 『고령화 가족』, 김영하 작가의 단편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오정희 작가의 단편집 『불의 강』 등 국내 문단을 주름잡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번역하고 있다.

### 번역가의 역할은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한국문학번역원은 2001년에 출범하였고, 내가 번역을 시작한 시점은 2005년 말부터였으니 사실상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에는 해외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었을 때였고, 해외 출판사를 발굴하거나 연락을 하고, 저작권 계약을 하는 대부분의 과정에 번역가가 적극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러시아 출판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원고 전체나 일부를 보낸 후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도 번번이 거절을 당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저작권 계약을 진행할 때 번역가가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꽤 많은 편이다. 저작권자인 한국 작가, 해당 작가의 특정 작품에 대한 해외 판권을 관리하는 한국 혹은 외국의 에이전시 대표, 번역 지원을 하는 한국문학번역원, 러시아 출판사 대표, 러시아인 공역자까지 나는 틈나는 대로 저작권 계약서의 현재 위치나 계약이 지연되는 이유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일례로 내가 처음으로 번역한 『봉순이 언니』의 경우 완역을 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로 출간이 보류되다가 거의 8년 만에 극적으로 출간이 된 바 있다. 번역한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9년이고, 번역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한 기간까지 더하면 거의 10년이란 세월이 걸린 것이다.



## 한국 소설을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어려운 점은...

물론 무수히 많다. 나는 번역을 시작한 2005년 말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터뷰나 러시아 관련 행사, 혹은 학회에서 번역에 관한 발표를 할 때면 틈나는 대로 번역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1) 호칭

우선 한국에는 선생님, 형, 누나, 선배님, 과장님, 교수님 등 수없이 많은 호칭이 존재하며, 이것은 고스란히 소설에 반영된다. 따라서 번역할 때는 이런 호칭을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하고 각주를 달 것인지, 러시아어에 있는 존칭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번역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유타카) 상”이라는 호칭을 러시아어 텍스트에 그대로 쓰는데, 이것은 초창기에 일본 소설을 러시아어로 옮길 때 수차례에 걸쳐서 ‘상’이라는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고 각주를 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해당 호칭에 익숙해졌다고 생각되었을 시점에 각주를 빼고 ‘상’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다.

### 2) 복수형

복수형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어의 특성 역시 외국어로 번역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자리 잡는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귀가 아파요.”라고 말한다면, 한국인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그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장을 러시아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는 생각을 해야 한다. 과연 이 환자는 한 쪽 귀만 아픈 걸까, 아니면 양쪽 귀가 다 아픈 걸까? 그래서 나는 번역할 때 늘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번역한다. 이빨들, 팔들, 다리들이 아픈 건지 혹은 이빨 하나, 팔 하나, 다리 하나가 아픈 건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으려고 애쓴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얘기를 하자면 한국어로 해당 영화는 기생충이라는 단수형을 쓰지만, 러시아어로는 “기생충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에 살면서 한국 소설을 번역하는 한 러시아인 번역가가 내게 의견을 물어서 알게 된 것인데 그때 나는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있듯이 한국어에도 분명히 복수형이 존재하며, 감독이 영화 제목을 “기생충들”이 아니라 “기생충”이라고 정했다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기생충들”보다는 “기생충”이라는 단수형이 제목 자체만 보더라도 조금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았다.

### 3) 촘촘해서

한국 사람들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 같이 알아들으라.’는 말을 하곤 한다. 대충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알아서 잘 정리해서 이해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러시아어는 언어 자체가 매우 촘촘해서 개떡은 절대로 개떡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 ‘가다’ 혹은 ‘오다’라는 동사만 해도 갈래가 어마어마하다. ‘잠깐 들르다’, ‘몇 발자국 걸어가다’, ‘돌아가다’, ‘접근하다’, ‘도착하다’, ‘흘러지다’, ‘모이다’ 등 무수히 많은 동사가 존재한다.

‘너 도착했니?’라는 문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있고, 만날 장소를 정하고

만나는 것이니 건물 앞에 있는지 건물 안에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러시아어로는 '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도착해서 건물 앞에 있는지 건물 안에 있는지, 걸어서 오는지 차를 타고 오는지, 비행기로 오는지, 뛰어오는지 등을 표현해주기를 원한다.

#### 4) 논리 그리고 접속사

한국어는 접속사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지만, 러시아어의 경우 무수히 많은 접속사가 존재하며, 이 접속사들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다채로운 논리를 만들어낸다.

이 외에도 한국 소설을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어려움은 셀 수 없이 많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의식의 흐름, 논리 체계 등 많은 것이 녹아 있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와 같기 때문에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동한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러시아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려운 점

#### 1)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다

러시아 소설을 읽을 때 독자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관계에 따라서 '이반 페트로비치', '이반', '바냐', '바네치카', '바뉴시카', '바뉴샤' 등으로 무수히 많다. 하지만 역자가 원작에 있는 대로 충실히 번역해서 이 이름들을 모두 그대로 옮긴다면 한국 독자들은 이들이 모두 다른 사람이며, 원작의 등장인물이 실제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자는 독자들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나는 문맥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자가 다른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름의 종류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편이다.

#### 2) 호칭이 없어서 힘든...

한국어의 경우 관계에 따라서 호칭이 다양하지만, 러시아에는 호칭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이나 회사의 직위, 직업에 따라 다양한 호칭이 존재하며, 우리 모두는 서로 그렇게 불러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공식적인 관계라면 '이름+부칭(아버지의 이름을 토대로 만듦)'으로 부르고, 이름만 부를 수도 있고, 많이 친하다면 애칭으로 부른다. '친구'라는 개념도 우리와 달라서 나이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친구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나는 러시아 소설 속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보다 나이가 더 많은지를 따져서 존대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번역한다.

#### 3) 소설 속에 자주 등장하는 학문 분야

러시아 소설 속에는 물리학 법칙이나 음악 이론 등이 종종 등장한다. 내가 번역한 『비행사』의 경우 주인공이 냉동되었다가 해동되기 때문에 냉동인간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고, 책을 읽었던 적이 있다. 또

소설 속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시 추락할 때 어떤 일이 생기며, 왜 연료를 버리는지 등과 관련해서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개 언어로 자료를 검색하고, 내가 러시아어를 가르친 제자 중 전투기 조종사가 있어서 해당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 적이 있다.

## 원작을 빛나게 할 좋은 번역이란

### 1) 한국 소설을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한국 소설에는 접속사가 거의 없으므로 문장과 문장을 단단하게 연결할 접속사들을 시기적절하게 넣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소설에서 작가가 사용한 표현이 관용어라면 최대한 직역을 해서 의미를 살리되, 그렇게 했을 때 원문의 의미와 번역문의 의미가 다르다면 의역을 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어의 경우 수의 개념이 철저하므로, 원문에서 “귀가 아팠다.”라고 했다면, 한쪽 귀가 아팠는지, 양쪽이 다 아팠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 주어 생략된 문장이 많은데 러시아어로 옮길 때는 과연 누가 한 행위인지를 밝혀야 하므로 대화문인 경우 특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남자가 여자에게 했는지, 여자가 남자에게 한 말인지를 분석해서 번역하고 있다.

### 2) 러시아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러시아 소설의 경우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접속사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한국어로 옮기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어색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대한 접속사를 덜어내고, 명사나 대명사로 표현된 주어 역시 의미가 전달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생략한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이모, 고모, 숙모’ 등을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우 이모인지, 고모인지, 숙모인지를 잘 파악해서 번역해야 한다.

한국 소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든지 러시아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든지 원작을 빛나게 하려면 우선 잘 읽혀야 한다. 등가성에 치중하면 가독성을 잃고, 지나치게 가독성만을 추구하면 무수히 많은 오역이 발생한다. 번역이 제2의 창작이기는 하지만, 번역은 원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문을 성실하게 따라가되 번역된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고 수긍하고, 시기적절하게 저자의 유머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번역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이므로 작가보다 너무 앞서서도 뒤쳐져도 안 되고,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번역한 글을 다듬으며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하되 꼭 필요한 경우 각주를 시기적절하게 넣는 노력을 기울여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원작을 빛나게 할 번역이라는 것은 해당 작가의 독특한 생각이나 상상력, 원작의 배경이 되는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유려한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소설이 재탄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가는 번역을 잘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글 쓰는 연습도 꾸준히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역시 작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한번역을 연습하기 위해 나는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작가로 등단해서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정말로 나의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서 원작을 빛나게 할 번역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사진은 현재까지 한국과 러시아에서 출간된 역서 및 저서이다.



### 송주연(번역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어 언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2005년 말부터 공지영의 『봉순이 언니』,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 김영하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등 총 8권의 역서를 출간하였다. 또한 알리사 가니에바의 『상처받은 영혼들』, 빅토리아 토카레바의 『티끌 같은 나』, 예브게니 보돌라스킨의 『비행사』와 같이 러시아 베스트셀러를 번역 및 출간한 바 있으며, 현재 소설 번역과 러시아어 강의 외에도 자산운용회사 “빌리언알이”에서 러시아 콘텐츠를 유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krasibaya@daum.net

www.instagram.com/jooyeounseoung

## 좋은 시를 찾아, 깊게 읽자

이건청(시인)

2022. 2.

튼실한 기둥이나 곧게 벌은 서까래나 번듯한 창문틀, 철근이나 시멘트가 마련되어 있다고 좋은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목수가 지닌 안목과 배려, 공교로운 솜씨가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고, 트랙에 조경수도 심고, 처마 끝에 풍경(風磬)도 달려서 운치 있는 집 한 채가 완성되는 것이다.

시를 읽고 감상하는 것도 시의 뼈대(주제, 의미)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뼈대를 감싸주는 표현의장(表現意匠)들이 중요하다. '의장'이란 표현 의도를 구체화해 좋은 건축물이 되게 하는 세세한 치장들을 말한다. 좋은 시에는 시인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빛을 발하는 다양한 '표현의장'들이 있기 마련이다. '보물찾기' 놀이에선 눈 밝은 독자가 선생님이 숨겨 놓은 '보물쪽지'를 찾는다. 사실 보물찾기의 진정한 재미는 솔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랑잎도 들쳐보고 돌쩌귀도, 나뭇가지도 흔들어보는 탐색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의 감상은 주제·의미를 감싸주는 시인의 표현의장들을 밝혀내는 일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시인은 자신의 표현의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 비유, 상징, 알레고리, 운율, 행 가름과 더 많은 표현의장들 속에 차곡차곡 담아서 구조화된 시 한 편을 창작해 낸다. 시를 감상하는 것은 표현의장 속에 담겨진 시인의 노고를 밝혀내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인간의 영혼을 상승시키며, 안일과 타성에 빠져 나태해진 삶 속에서 '발견'의 지평을 찾아 보여주는 시가 좋은 시이다. 시는 인간성의 핵심과 연관되어 있는 예술이다. 시는 사람의 정서와 상상력과 사유에 토대를 둔 예술이며, 인간 영혼을 심오한 가치로 고양시켜주기도 하는 예술이다.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피와 살과 뼈로 구성된 유한 존재이고 미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정서와 상상력과 사유와 영혼을 불러내서 영속하는 가치를 만들어 제시해 보여주기도 한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좋은 시를 접하면 가슴을 치는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섬광처럼 눈 시린 깨달음을 느낄 수도 있다. 시를 읽으며 가슴을 치는 감동이나 눈 시린 깨달음을 만날 때, 사람은 심리적 긴장(tension)을 느끼기 마련이다. 여러 시편들 속에서 심리적 긴장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시가 좋은 시이다. 시 읽기는 그런 시를 찾아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좋은 시를 만났으면 그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할 것인가를 짚어보기로 한다.

## 시어(詩語) 읽기

시는 짧은 형식 속에 고도로 정제된 감각과 사유와 상상력을 담아내는 언어 예술이다. 단 몇 줄의 시에 천둥 벼락 같은 감동을 담아내기도 하며, 사람의 뇌리에 평생 진한 그리움을 심어주기도 한다. 시는 이런 특이한 힘을 지닌 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시적 말하기이다. 시인들은 단 몇 마디로 전달할 수 있는 직설 화법의 말을 버리고 더 곡진하고 세세한 말을 찾으려 한다. 시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관념이나 상식의 말이 아니고 보다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말이다. 그러므로 시인들이 즐겨 쓰는 말하기를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시인들이 그들 나름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말을 ‘시어(詩語)’라고 한다.

보통 일반인들은 말을 의미 전달의 도구로 쓰고들 있다. 가급적이면 국어사전의 뜻풀이 범주로만 쓰고들 있는 것이다. 가령, “내일 10시 30분 지하철 총무로력 4번 출구에서 만나자.” 같은 말들이 그렇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의 모든 말들이 그런 말들이다. 그러나 “나의 본적(本籍)은 늦가을 햇볕 쬐이는 마른 잎이다. 밟으면 깨어지는 소리가 난다.(김종삼 「나의 본적」)” 같은 말은 전혀 쓰임새가 다르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된 말들의 결합이 아니다. 오히려 국어사전식 단일한 의미 전달이 아니라 여실한 감각이나 느낌 등의 다양성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말들의 결합이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늦가을 햇볕 쬐이는 마른 잎”의 감각으로 찾아낸 시인의 안목은 청신한 감각의 파장을 환기해준다. 이를테면 시를 비유적 언어로 바꾸어 쓰니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가장 순정한 말, 궁극의 말은 의미의 때에 절어 있는 상식어가 아니다. 가령, 첫사랑 고백의 언어는 상식과 타성의 말이 아닐 것이다. 상대에게 진심이 닿아주기를 바라는 비유의 말이며, 순정의 말이며, 설렘의 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시를 읽는 독자는 국어사전식 어법이 아니라 시인들의 어법 쪽으로 가서 시 속에 시인들이 담아내려 한 감각이나 직관, 상상력 등에 참여해서 ‘시의 문장’이 담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의 경험으로 되살려내는 ‘시 읽기’에 참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툰 시 읽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시 속에 담긴 눈 시린 환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 시의 제목 이해하기

시의 제목은 특정 시 작품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가 아니다. 시의 제목은 시의 본문 전체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의미론적 변용을 창출해낸다. 시의 독자는 시 제목의 쓰임새를 깊이 살펴야 한다. 시의 제목은 한 편의 시로 진입하는 암호 코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젤영양 한 마리 물 속의 악어에게 먹히고 있다. 순간이었다. 가문 대지 목마른 가젤영양들이 가물어 말라붙은 초원을 걸어 물을 찾고, 그 물 속에 머리를 들이미는 순간, 코도 귀도 눈도 물속에 감추고 숨어 있던 악어들이 돌진하였다. 정확히 몸통을 물린 가젤영양은 물린 채 깊은 곳으로 끌려갔고, 먹이를 가로채려는 다른 악어 떼들의 다툼 속에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잠시, 가련한 이 짐승의 머리 부분을 삼키는 예리한 이빨의 악어 모습을 끝으로 연못은 다시 적막 속으로 빠져 갔다.

- 이견청 「시인」

위의 시 제목 「시인」은 현대 사회에서의 시와 시인이 처한 험난한 처지를 보여주는 알레고리 시이다. 만약 이 시에 「동물의 왕국」 같은 제목을 붙였다면 그냥 본문 내용의 설명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 시는 상상력과 감수성이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 섬세하고 예리한 감성을 지닌 시인이 처한 비극적 현실을 투시해낸 시이다.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엄존하는 열대 밀림에서 악어에게 먹히는 가젤영양은 시인의 위상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장면의 묘사가 시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제목과 본문이 은유의 관계를 이루면서 새로운 의미 체계를 창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시는 제목과 시 본문과의 의미 층위가 멀어지는 것이 좋고, 은유의 관계가 되도록 선택되는 것이 좋다. 시의 제목과 본문 사이의 거리가 멀게 선택될 때, 한 편의 시는 더 너른 시적 긴장을 지니게 된다.

## ‘행간(行間)’ 읽기

시의 독법에 있어 ‘행간(行間)’ 읽기는 시의 감상을 풍요롭게 한다. 시인이 쓴 시를 감상하게 될 때, 문자 표기 외에도 행과 행 사이의 여백에 묻어둔 함축 의미를 찾아 읽어야 더 깊은 시의 본질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간 읽기’는 시 읽는 즐거움을 배가 시켜준다.

이런 시 중에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해서 찬연한 광채를 지니며 비싼 값을 지닌 시들이 있다. 이런 시는, 흔히 ‘난해시’로 불리기도 하지만 깊게 공들여 읽을수록 찬연한 환희를 건네준다. 견고한 보석이 귀한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반쯤은 재가 됐구나, 말아

네가 딛고 온 풍상이

검은 이끼 되어 돌 틈을 덮고 있다

채찍이 오히려 아프지 않구나, 말아

능 하나를 지키고 선 말아

-이건청 「말」

위의 시는 제목 포함 불과 6행만으로 되어 있다. 제목이 ‘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은 형상만 ‘말’의 모습이지만 돌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세상 떠난 지 오래된 왕이나 고관대작의 무덤인 ‘능’ 앞에 능지킴이로 서 있다. 삶의 허위(虛僞)나 무상성(無常性)을 풍자하고 있다. 그런데 시인은 시어를 엄격히 배제하고 있다. 핵심적인 기동을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을 독자의 상상력으로 복원해내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시의 도처에 단절과 비약이 놓여 있다. 이런 시는 독자가 상상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시에 참여해서 함축과 단절, 비약을 복원해내야 한다. ‘행간’ 읽기는 시 감상자에게 무한 자유를 베풀어준다. 이런 시는 ‘행간(行間)’까지를 읽어야 시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게 배려되어 있다. 또한 ‘행간(行



間)까지를 읽어야 시의 총체적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게 배려되어 있다. 그리고 행간 읽기는 이런 배제의 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편들을 읽을 때에도 유용한 독법(讀法)이 될 수 있음도 기억해두었으면 한다.

## 소리 내어 읽기

시를 읽을 때 눈으로 읽을 수도 있고, 입으로 읽을 수도 있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 읽을 때는 입으로 소리 내서 읽기를 권한다. 시의 말(구어)은 시어의 의미와 소리가 결합되어 있다. 우리가 명시로 기억하는 시편들 거의가 의미와 소리의 결합이 공교롭게 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현대 한국 시 중에는 시어의 소리 기능을 감안하지 않고 쓴 시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 시 중에서도 김영랑이나 정지용, 박목월의 시들은 ‘의미와 소리’의 결합이 곡진하게 이루어진 시들이 많은 것 같다. 말의 소리 기능을 의식하지 않고 시를 쓰는 것은 언어 예술인 시가 지니는 소중한 자산을 버리고 시를 쓰는 것과 같다. 글자로 인쇄되어 있는 시는 소리를 내서 반복해 읽으면 ‘의미와 소리’의 결합되어 올려내는 곡진한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 보담도 내 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망극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박재삼의 시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말소리의 느린 울림의 반복과 저무는 날의 색채감 등이 기막히게 합쳐져 있다. 이런 시는 소리를 내서 낭송을 해야 이해의 궁극에 닿을 수 있다.

나는 교단에서 40여 년 동안 시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곤 하던 말이 있었다. “읽어서 가슴을 치는 시가 좋은 시이다. 좋은 시를 선택했으면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어라. 소리를 내서 읽으면

훨씬 더 시의 진면목이 살아난다. 그리고 되짚어 한 행 한 행을 읽고 그 함축을 떠올려보아라. 특히, 행과 행 사이 빈 공간의 함축도 읽어라. 행간(行間)의 함축까지를 읽어낼 때 시 한 편이 지니는 총체적 가치를 모두 알 수 있는 법이다.”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달라는 것이었다.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시에 가까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공들여서 거듭 읽고 시를 상상과 감각으로 받아들일 때, 시는 온전한 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게 될 것이다.



---

#### 이건청(시인)

1967년 한국일보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실라캔스를 찾아서』, 『곡마단 뒷마당엔 말이 한 마리 있었네』, 『굴참나무 숲에서』, 『반구대암각화 앞에서』 외 다수의 시집을 출간했다. 한국시인협회 37대 회장이자, 한양대학교 명예 교수이다.

lgcpoet@naver.com

출판  
N